

R&D 역량 높이고... '제약강국' 드라이브 약발 받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스페셜 리포트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을 '제2의 반도체'로 낙점해 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 1조원을 버는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이 등장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개발해 상업화에 성공한 신약은 총 37개다. 1999년 7월 국산 1호 신약 SK케미칼의 항암제 '선플라주'부터 올해 4월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이 37호 국산 신약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요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산 신약 32호인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개발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매출액 2조1764억 원 가운데 15.75%에 달하는 3427억 원을 R&D에 투입했다.

폐암치료제 '렉라자정'을 개발한 유한양행도 매출액의 10.5%인 1944억 원을 R&D에 썼다.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등도 R&D에 각각 1083억 원, 974억 원을 투입해 매출액 대비 R&D 재투자 비율이

K-신약 37개, 연매출 1兆 전무
주요기업, 연구개발 재투자 확대
정부, 유망기술 등 총 25兆 투입
글로벌 패권경쟁 심화는 걸림돌

"민관 장기투자·경험 축적 관건"

16.3%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목표를 설정했다. 계획엔 세계 50위에 드는 제약사 3곳 육성과 의약품 수출 실적 2배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매출에 방점이 찍혔다.

블록버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연매출 1조 원(약 7억2421만 달러)을 달성한 의약품의 의미이다. 정부는 세포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mRNA 등 유망기술과 관련된 민·관 R&D에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기업은 최근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성과를 내고 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스파이크박스'로 2022년 184억 달러(25조 112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개발한

ADC 항암제 '엔허투'의 지난해 매출은 약 27억2800만 달러(3조7673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산 신약 중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꼽히는 사례는 없다. 연매출 1조 원은 국내 중견 제약·바이오기업의 지난해 연간 매출에 맞먹는 규모다. 따라서 업계는 단일 품목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국가 간 '바이오 패권 경쟁'도 국산 블록버스터 매출 난도를 높이고 있다. 1조 원 이상 매출 확보를 위해 글로벌 진출은 필수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제 장벽이 쌓이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최근 자국의 의약품 자급력과 R&D 역량을 확보하고, 자국내 생산기반 강화 목표가 담긴 규제를 속속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산업계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단장은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장기적인 자금 조달은 물론, 기업 자체적으로도 R&D 재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유능한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거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들도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hsj@



장마철 채소값 '들쭉'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5일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1178원으로 일주일 만에 17.3% 올랐다. 일주일 새 소매가격 기준 쌈배추(알배기배추·한 포기)는 3032원으로 26.0%, 시금치(100g)는 1276원으로 30.1% 올랐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세수펄크에 '한은 마통' 쓴 정부 올 상반기만 91.6兆 '역대 최대'

71.7兆 상환... 이자 1291억 최대
"종부세 폐지 등 세수 축소 대비를"

정부 '한국은행 마통' 연도별 누계액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90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다. ▶ 관련기사 4면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91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한은에 빌린 누적 대출액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 대규모 '세수 펄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 2000억 원)보다도 4조4000억 원 많다.

대규모 대출로 올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291억 원(1분기 638억 원, 2분기 6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마이 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며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펄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19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현미경 감시'

미공개 정보 활용·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법 시행 즉시 엄중제재
"제도화 초기 시장 경각심 높일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감시·조사·제재'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한다. 불공정행위를 법 시행 초기부터 엄중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 관련기사 15면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 분산 상장 및 장이 24시간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증권신고와 같은 공식 정보는 부족했다. 반면,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 체계는 부족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법의

하위 법령 정비 및 조직·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등을 적발해 당국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현재 거래소 대다수는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및 내규,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을 완료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후속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가상자산조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1일 사전회의를 실시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6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크게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구분해 조사 및 처벌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 △현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을 통해 조사한다. 이와 관련된 거래소를 통해 △심리자료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부터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며 "조사 업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안전·신뢰성' 확보 사활

정보유출·환각 등 적극 대응
민간자율 신뢰성 인증 준비 중
 SKT는 ISO·IEC 42001 획득
 KT, RAIC 신설·위험관리체계 LGU*, AI·데이터 거버넌스 구성



이동통신 3사 AI 안전성 확보 현황

※출처: 각사

SK텔레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 획득 회사 경영에 AI 거버넌스 도입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AIC)' 신설 AI 관리체계 구축 및 AI 윤리원칙 고도화
LG유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데이터 거버넌스 전문조직' 구성 AI 안전기술로 민감정보·유해정보 제거

인공지능(AI)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안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 유출 및 환각(AI가 부정확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 등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자사 AI 서비스에 대한 AI 신뢰성 인증(CAT·Certif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CAT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부여하는 민간

자율 인증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CAT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국내 첫 'AI 신뢰성 단계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TTA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도입 후 CAT를 취득한 기업은 3곳에 불과하다.

이통 3사 중 'CAT 인증 4호'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T는 통신 전문 용어와 통신사 내부 지침을 학습한 '텔

코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하고 있다. 텔코 LLM은 SKT의 AI 개인비서 '에이닷(A.)'과 오픈AI의 GPT-4, 엔스 로픽의 클로드 등을 활용했다. SKT는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위해 AI 거버넌스를 회사 경영에 도입하기도 했다. SKT 관계자는 "사업부별 요구사항에 맞춰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자체 파운데이션 초거대

AI '믿음(Mi:dm)'을 선보였다. 경량 모델부터 초대형 모델까지 총 4종이다. KT는 AI 역량을 활용해 AI 통화비서 서비스와 온디바이스 AI 사물인터넷(AIoT)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4월에는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AIC)'를 신설했다. 안전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등 AI로 인한 위험에 대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내 적용 중인 AI 윤리원칙을 고도화했다. KT 관계자도 "CAT 인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통신·플랫폼 데

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 '익시젠(ixi-GEN)'을 출시했다. LG AI 연구원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한 소형언어모델(sLLM)이다. 향후 금융, 교육, 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익시젠 서비스를 개발한다. LG유플러스는 'AI·데이터 거버넌스 전문 조직'을 구성했다. 또 AI 안전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해정보 등을 제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CAT 활용 계획이 있다"며 "관련 시점은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AI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검증 과정을 통해 오류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계속해서 수정해야 한다"며 "AI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마트 가는데 탱크 모나”... 소형 인공지능 주목한 글로벌 빅테크

“쇼핑을 위해 탱크를 몰고 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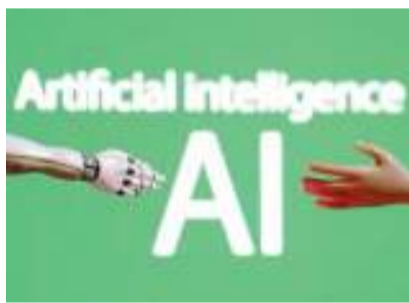
빅테크와 스타트업계가 최근 저렴한·경량화·전문화한 소형거대언어모델(sLLM·Small Large Language Model) 인공지능(AI)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간 AI 경쟁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모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거대언어 모델(LLM), 초인공지능(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

MS '파이3'·구글 '젬마' 등 줄이어 AI 수익화 불투명해지자 경량화 개발비 월등히 적고 전문화 이점

gence) 등이 그 예다.

하지만 AI 수익화가 불투명하자 '가성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WSJ는 “문서 요약이나 이미지 생성과 같은 단순한 작업에서 LLM을 사용하는 것은 식료품을 사러 가기 위해 탱크를 운전하는 꼴”이라고 평가기도 했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 규모와 비용을 효율화하고, 범인류적 지식보다는



금융·법률·의료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한 AI를 설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픈AI의 GPT-4 같은 LLM은 파라미터(매개변수·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변수)가 1조 개가 넘고 개발 비용도 최소 1억 달러(약 1383억

원) 이상이지만, sLLM은 100억 개 미만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며 개발 비용도 1000만 달러 미만이 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4월 sLLM 모델인 '파이(Phi)3'를 선보였다. MS는 생성형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최초의 빅테크 기업이지만, 이제는 거대 클라우드 기반의 슈퍼컴퓨터에 접속할 필요 없이 장치에서 바로 구동될 수 있는 sLLM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구글이 2월 '젬마'를 선보인 것을 비롯해 AI 유명 스타트업인 미스트랄, 엔

소형거대언어모델(sLLM·small Large Language Model)

소형화하고 경량화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지칭한다. 오픈AI의 GPT나 구글의 제미니와 같은 LLM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설계된 것과 달리 의료·법률·금융 등 특정 분야로 한정, 처리하는 데이터와 전력을 대폭 줄이면서도 성능을 정교히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스로픽, 코히어 등도 올해 sLLM 모델을 선보였다. 애플도 지난달 공개한 AI 로드맵에서 sLLM을 활용해 휴대폰에서 가동되는 '온디바이스 AI'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오래 기억하고 싶을, 찬란한 여름 마켓

일정 6. 28(금) - 8. 25(일)

눈 부신 태양 아래 즐거운 경험으로 가득한 '솔레 디 포지타노'로 초대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휴양지, 포지타노의 낭만을 현대백화점에서 경험해 보세요!



행사 자세히 보기

‘차세대 항암제’ 담금질 한창... K블록버스터 1호 될까

항체약물접합체(ADC)가 차세대 항암제로 떠오르며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달리티(치료 접근법)로 꼽히며 ADC 관련 인수합병(M&A)과 임상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의약품을 빠르게 설계·생산할 수 있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에 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외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상용화한 사례는 없지만, 암 백신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등에 기대를 걸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다.

◇암세포 정밀 타격 ADC=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제약·바이오업체가 기술이전, 지분투자,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A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조 단위 계약으로 K-제약·바이오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ADC는 항체, 페이로드(약물), 링커로 구성된 항암제로 암세포를 정밀 타격해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차세대 항암제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품목은 15개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대표적인 ADC 치료제 성공 사례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2029년 글로벌 ADC 시장 규모는 360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가 ADC 개발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링커 기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 ADC 플랫폼 ‘콘주올(ConjuAll)’로 ADC 신약을 개발 중이다. 2015년 중국 포순제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안센까지 누적 13건, 8조7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구분	기업	분야	내용
ADC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	위암, 폐암, 대장암 등	항체 및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 13건(누적 8조7000억원)
	피노바이오	고형암	플랫폼 국내외 기술이전(누적 1조9000억원)
	지놈앤컴퍼니	부인과 질항암증	스위스 디바이옴에 5800억원 규모 기술이전
	동아에스티	위암, 췌장암 등	링커 기업 애티스 인수
mRNA	GC녹십자	독감, 희귀질환	생산설비 구축, 캐나다 아퀴타스와 협력
	차백신연구소	항암백신	독자 개발 면역증강제 탑재 ‘리포플렉스’ 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본노염, 라싸바이러스	CEPI가 최대 2000억원 지원

※ 출처: 각 사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ADC’ 2029년 글로벌 시장 규모 50조 리가켄바이오 ‘콘주올’ 개발로 두각 동아·종근당, 전통 제약사도 참전

을 따냈다. 기술료 실적에 올해 1분기 기준 보유 현금에 6000억 원에 달한다.

피노바이오는 ADC 플랫폼 ‘PINOT-ADC’로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으로부터 전략적 투자유치를 받았다. 누적 기술료는 2조 원이다. 지놈앤컴퍼니는 지난달 스위스 디바이옴에 신규타깃 ADC 항체 ‘GENA-111’을 총 5800억 원에 이전했고, 인투셀은 스위스 ADC테라퓨틱스에 ADC 플랫폼을 수출했다.

전통 제약사도 참전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2월 ADC 기업 애티스를 인수하며 ADC 개발을 본격화했다. 종근당은 작년 네덜란드 시나픽스의 ADC 기술을 도입했고, 삼진제약은 국내 기업 노벨티노빌리티와 ADC 공동연구 개발협약을 맺었다.

◇감염병부터 암까지, ‘mRNA’ 신약= 국내에서도 mRNA를 활용한 백신·치료제

개발 시도가 활발하다. 주로 백신 개발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기술 확보에 나섰다.

GC녹십자는 2017년 말부터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mRNA를 낙점했다. 지난해 11월 전남 화순 백신공장에 mRNA 생산시설을 마련,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준비를 마쳤다. 캐나다의 지질나노입자(LNP) 개발사 아퀴타스와 손잡은 GC녹십자는 자사의 신규 mRNA-LNP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임상단계 진입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mRNA를 활용한 독감백신과 희귀질환인 숙신알데히드탈수소효소결핍

모더나 코로나백신 개발로 떠오른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mRNA’ SK바이오사이언스·차백신연구소 국내 기업들도 기술 개발 힘쏟아

증(SSADHD)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차백신연구소는 mRNA 전달체 ‘리포플렉스(Lipoplex)’를 개발했다. 리포플렉스는 LNP 대신 리포좀 기반 mRNA 전달체로, 차백신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TLR2 기반의 면역증강제가 첨가됐다. 리포좀은 동결건조가 가능해 콜드체인대신 상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다. 안정성과 전달력, 면역 증가 효능 등을 활용해 항암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감염병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재 일본뇌염과 라사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신종 선별 풍토성 감염병 백신 개발 과제에 선정돼 최대 1억4000만 달러(약 2000억 원)를 지원받는다.

다만 국내 기업의 mRNA 백신·치료제 개발은 아직 기초단계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의견도 있다. 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모더나의 경우 현재 호흡기질환, 암, 희귀질환을 포함한 49개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이 가운데 9개는 후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유혜은 기자 euna@

“임상3상 단계서 막대한 비용에 좌절 정부, 지원 아닌 투자개념으로 도와야”

전문가 제언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과 관련 “시간, 협력,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영민(사진)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은 “신약개발은 10년 이상 장기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업·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지속해야 ‘국산 블록버스터’가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이자 과학자인 박 단장은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 건국대의생명과학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제약·바이오 전문가다.

박 단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둔 국산 신약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항암제 레이저티닙,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테고프라잔과 펙수프라잔염산염 등 국산 신약이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진출 국가가 늘면 이들 중 최소 2개는 블록버스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단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율은 세계 2위로 추산되며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이다.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은 77.9%, 기술 격차는 3.1년으로 좁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R&D 투자는 상위 기업 10곳을 합산해도 약 2조 1000억 원이다. 글로벌 빅파마는 한 해에 만 17조~19조 원을 R&D에 투자한다”며

미국 등 선도 국가와 비교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국내 기업은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임상 3상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실패해 개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기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경영환경 변화나 자금난에 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발·상업화 전략은 필수다. R&D 자금 조달과 해외 규제 장벽 극복은 물론 경쟁에서 이기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단장은 “경쟁력 있는 특정 질환이나 기술에 집중해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ADC와 mRNA 등은 주목받는 분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업을 독려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박 단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임상 2·3상은 연구비 지원 개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자금 조달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hsj@

최대오트함량 12.6%

AMAZING OAT

Maeil

AMAZING OAT

영양 가득 마시는 귀리 어메이징오트

β-GLUCAN 700 mg

* 23년 5월 국내 제조 오트 음료 제품 기준

온라인: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쿠팡, SSG.COM, 카카오 쇼핑하기, G마켓, 11번가, 마켓컬리, 위메프
오프라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올리브영, 현대백화점, SSG 청담, 코스트코, 홈플러스포스트, GS더프레쉬마트, 롯데슈퍼, 롯데(MAXX), 메가마트, 뉴코아, 김스클럽,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리아 백화점, AK백화점
매일유업 소비자 상담 1588-1539

녹록지 않은 재정에... 정부, 의무·경직성 지출 손대나

지난해 재량지출 124.3조 불과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넘어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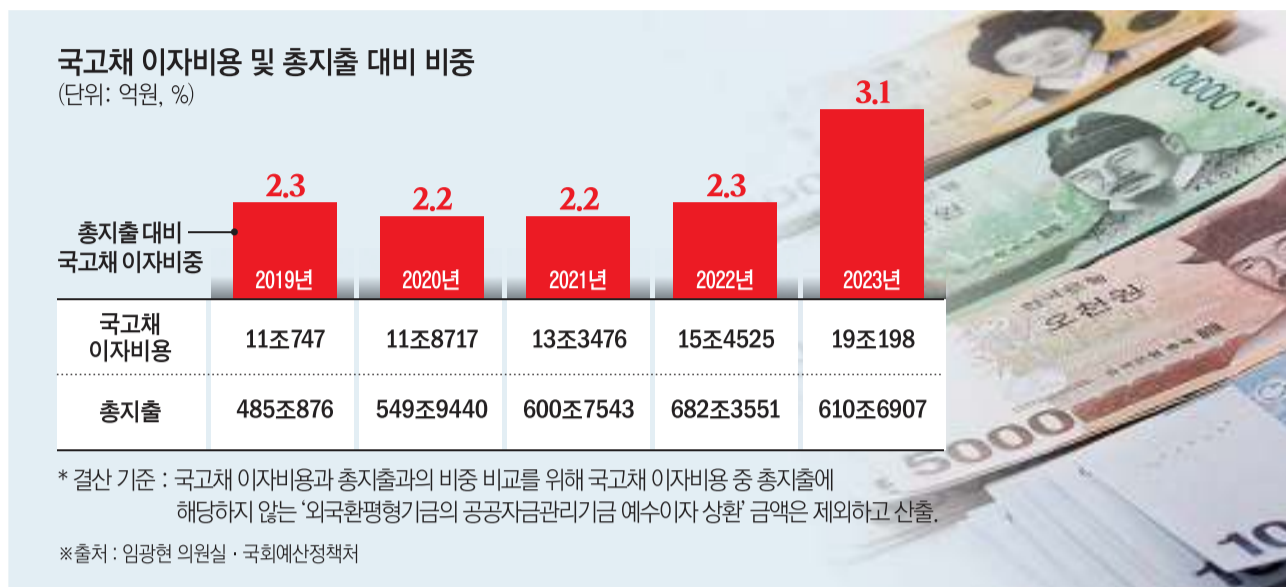
기재부 “의무·경직성 지출 늘어
재검토 통해 재정여력 확보 필요”
실제 구조조정까지는 가시밭길

정부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
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사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법
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
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
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
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
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의 ‘지출검토 제도’



(Spending Review) 사례를 우선으로
분석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는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
다”며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제시했다.

작년 총지출(638조 7000억 원, 예산
기준) 기준으로 의무지출(340조 3000

억 원), 경직성 지출(117조 1000억 원),
국방비(57조 원)를 제외한 사실상의 재
량지출은 124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재부는 통상 재량지출에 대
해서만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의무·경직
성 지출은 경상경비의 10%를 삭감하는
식으로 이뤄졌을 뿐 대대적인 구조조정
에 나선 적은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재정포럼 1

월호’에서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
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
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이라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
적인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
적하기도 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의무·경직성 지
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나
더라도 실제 구조조정까지는 험로가 예

상된다. 의무·경직성 지출은 국민이 받
는 일종의 권리로 인식이 되다 보니, 정
치적인 저항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로 지난해 재량지출인 연구개발(R&D)
) 예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
통을 겪었다.

정부가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
성 지출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재
정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 198억 원에 달
했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
중은 3.1%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코로나19가
끝났는데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
소에 필요한 재정 정책을 약화하는 요인
이 될 수 있어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
책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
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고용률 70%로 '역대 최고' 라지만... 30·40대女 빼면 오히려 하락

30·40대 여성의 고용률이 약진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 상승
을 견인하고 있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5월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보다 0.1%포인트(p) 오른 70.0%를 기
록했다. 고용률이 70%대를 기록한 건 사
상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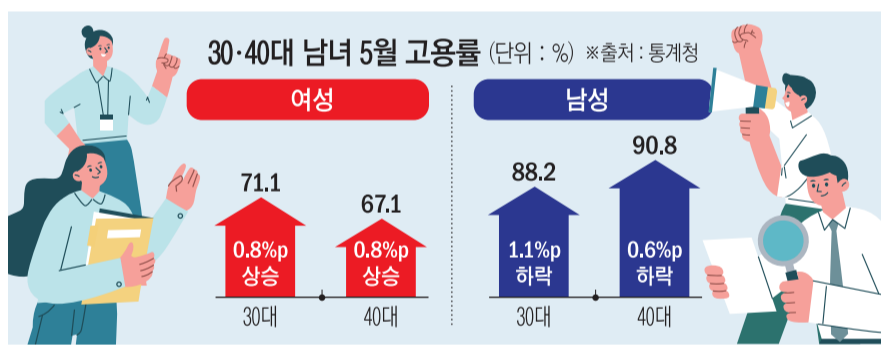
다만, 최근 고용률 상승은 30·40대 여
성의 견조도가 높다.

성·연령대별 고용률은 30대 여성이
71.1%로 0.8%p, 40대 여성은 67.1%로
0.8%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 30대는
88.2%로 1.1%p, 40대는 90.8%로 0.6%
p 각각 내렸다. 30·40대 여성을 제외하면

남성은 모든 연령대서 '뒷걸음'
30·40대 여성 제외뎀 0.5%p ↓
미혼여성이 고용률 상승 주도
숙박·음식점 女취업 두드러져

5월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
월보다 0.5%p 내리게 된다.

30·40대 여성의 고용률 상승도 긍정적
으로만 보기 어렵다. 30·40대 여성의 고
용률 상승은 미혼여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만혼화로 30·40대 여성 중 미혼자
가 늘며 전체 30·40대 여성의 고용률이
오르는 상황이다. 본지가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



난해 5월 26.2%였던 30·40대 여성 취업
자 중 미혼자 비중은 올해 5월 26.4%로
0.2%p 확대됐다. 반면, 유배우 비중은
59.2%에서 58.6%로 0.6%p 내렸다. 나
머지는 이혼·사별 인구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 여성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5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전년 동
월보다 8만명 증가했다. 4월과 비교하면
1개월 새 증가 폭이 5만1000명 확대됐
다. 숙박·음식점업은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올해 5월 기준으
로는 전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의

60.5%가 여성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사
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숙
박·음식점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
금총액은 210만2000원으로, 전체 근로
자 평균(386만6000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전반적으로 고용 흐름이 둔화하는 가운
데, 30·40대 여성만 미혼 인구 증가 등 영
향으로 고용률이 오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액 증가, 카드승인액 증가,
해외여행객 입국자 수 증가 등을 근거로
향후 고용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
다. 다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취업 지
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당선인
이 결선투표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테헤란의
한 사원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승리의 V자를 들
어 보이고 있다.
테헤란/EPA연합뉴스

이란 대통령에 '개혁파' 폐제시키안 당선... 서방과의 관계 개선 주목

'히잡 완화' 공약... 54.7% 득표
유권자, 경제난에 '새정치' 갈망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개혁파' 마
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의 2021년 퇴임 이
후 3년 만에 개혁 성향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 만큼 이란 내 정치 역학이 바뀔 수 있다
는 기대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이란 내무부와 관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폐제시키안은
전날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득표율
54.7%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상대 후보
였던 강경 보수파 사이드 잘릴리는
44.3%에 그쳤다. 폐제시키안은 당선 직
후 국영방송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이에게 우정의 손길을 뻗겠다"며 "국가발
전을 위해 모든 인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선 초반까지만 해도 이란 서열 1위 아
야톨라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의 '총성파' 잘릴리의 승리가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서 폐제시
키안이 득표율 42.5%를 기록하며 '뜻밖
의 1위'에 올랐다. 당시 잘릴리는 38.6%
로 2위에 머물렀다.

'이번'의 이유로 기성 보수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짙다. 강경보
수 성향 예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은
2022년 반정부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
하며 수백명을 사망케 했다. 또 미국과의
핵 합의 파기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
아 최악의 경제난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혁파 폐제시키안의 부상으로 대선 결
선 투표율도 급등했다. 1차 투표 당시 투
표율은 39.9%에 그쳤지만, 이번 결선 투
표율은 49.8%로 약 10%포인트(p) 높아
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유
권자들은 정치 불신, 무관심 등으로 투표
를 하지 않는 경향이 컸지만, 개혁파 폐제
시키안의 결선 진출로 '새정치'를 꿈꾸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평가했
다.

폐제시키안은 당선 가능성이 희미한
'비주류' 정치인이었다. 심장외과의 출신
으로 2001년 온건·개혁 성향 모하마드 하
타미 정부에서 보건장관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했다. 2008년부터는 마즐리스(의
회) 선거에 출마해 5선을 지냈고, 2016년

부터 4년간 제1 부의장을 맡았다.

그는 핵 합의 복원, 서방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강경파 후보들과
차별점을 강조했다. 또 '히잡 단속 완화'
를 내걸며 청년과 여성의 표심을 얻었다.

폐제시키안의 당선만으로는 이란의 변
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신정체제인 이란에서 대통령은 서열 2위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제시키
안은 신정체제에 순응하는 '온건 개혁파'
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
(NYT)는 "이란 대통령이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제시키안이 새로운
외교 정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
다봤다.
이나영 기자 2or0@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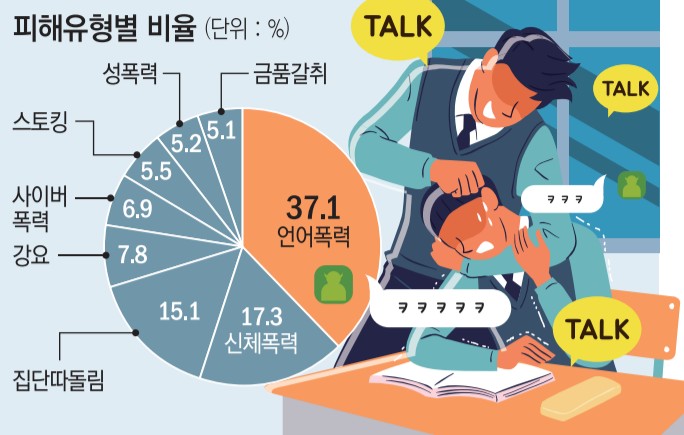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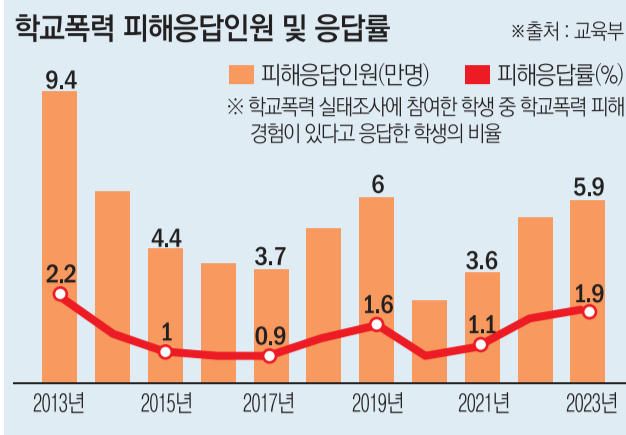
학폭 전담 조사관제 도입 100일
피해 꾸준히 늘어 10년새 최고
언어폭력 37%·신체폭력 17%
“디지털화에 SNS 괴롭힘 일상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한 지 100일이 됐다. 퇴직 경찰·교원 등이 전문적인 사안 조사를 맡음으로써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나아지기보다는 더 심해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직도 초등학교 때 사건이 안 잊혀서 당시 가해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찾아 봐요. 딸이 둘 있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딸들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고.”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난 한모(28) 씨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걸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피해 경험은 한 씨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한 씨는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이 시험에서 커닝을 했는데, 그걸 담임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됐다”면서 “그때 벽에 밀쳐놓고 배를 때려던 남자아이가 지금도 생각나서 근황을 찾아본다. 사과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때 시작된 따돌림은 한 씨가 같은 학급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한 뒤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한 씨는 “과거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이 영상이 컸던 것 같다”면서 “고등학교 때도 교실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뒤 한국에서는 어딜 가도 똑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한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로 유학행을 택했다.

이같이 적잖은 트라우마를 안기는 학교폭력은 꾸준히 늘어 최근 10년 새 최고치에 달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이 1.9%로 10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4부터 고3 학생 384만 명 전

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82.6%가 응답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체폭력(17.3%), 집단 따돌림(15.1%), 강요(7.8%), 사이버 폭력(6.9%), 스토킹(5.5%), 성폭력(5.2%), 금품 갈취(5.1%)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92.3%)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

니라고 생각해서’(28.7%)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인 경우도 21.4%였다. ‘스스로 해결하려고’(20.0%) 신고하지 않았다는 학생도 상당수였다.

한 씨 또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했다”면서 “내가 공부해 보면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환경 발달 등으로 학교폭력 수법은 더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SNS를 이용한 학교폭력이 일상화되는 추세”라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어로 괴롭히거나 인스타에 폭언성 댓글을 다는 행위 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전아현 기자 cahyun@

서울대 제외 모든 의대서 ‘추합’ 모집

(추가 합격)

작년 수시 합격자 분석

성균관대 추합 정원 대비 308%
“지방권 등록 포기 다수 발생”

정원이 늘어난 의대 가운데 상위권 의대의 선호도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대를 중심으로 추가 합격생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4학년도 수시 추가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수시에서 총 1658명을 모집했는데 추가합격자 규모는 다 합해 1670명으로 더 많았다. 추가합격은 기존 합격생이 해당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면서 발생한다. 모집정원의 100.7%가 타대학 중복합격 등의 사유로 등록을 포기하고 이탈했다는 의미다.

종로학원 측은 “전국 39개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복수의 대학에 중복합격 한 뒤 본인이 선호하는 의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만 추가합격자가 없었다. 나머지 38개교에서는 모두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는데, 성균관대는 수시 25명 모집에 77명이 추가합격돼 모집정원 대비 308.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톨릭관동대 296.2%, 충북대 226.3%, 조선대 213.6%, 을지대 204.2%, 동국대(WISE) 191.7%로 모집정원 대비 추가합격률이 발생했다.

반면, 주요 의대인 연세대는 60명 중 24명으로 40.0%, 가톨릭대 의대는 35명 모집에 25명으로 71.4%, 울산대는 29명 모집에 12명으로 41.4% 추가합격 비율이 낮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보다 다른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의대의 이탈이 더 심했다. 경인권 소재 4개 대학이 수시모집 정원 대비 129.5%가 타대학 중복합격으로 빠져나갔다.

이어 강원권(128.1%), 충청권(117.0%), 대구·경북권(109.8%), 부산·울산·경남(101.5%), 호남권(86.7%), 서울권(80.0%), 제주권(80.0%) 순이었다.

지역인재전형의 추가합격 비율을 보면, 강원권이 40명 모집에 52명이 중복합격했다. 이는 모집정원 대비 추가합격 규모가 130.0%에 달해 가장 높았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의대 등록포기자는 대체로 여러 의대에 중복합격으로 인한 이동으로 빚어진 것”이라며 “의대 중에서도 상위권 의대로 선호도가 집중되면서 비서술지역의 대를 중심으로 추가합격생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입시에서 의대 수시 등록포기자는 더욱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정원 역시 증가했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대폭 늘어나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등록 포기 인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현경 기자 son89@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Action for Positive Change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B 선정
2022 KIF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IFCA 대한민국 펀드매거진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성의 고객중심 정직과 성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O 교보증권

韓 “연판장 구태 극복”에도… ‘입십 논란’ 후폭풍 지속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의 영향 문자)

한동훈 “사퇴하라 연판장 돌아”
與 전당대회 2주 앞 ‘정면돌파’

당권주자들 “무책임한 아마추어”
“독단적 의사결정에 총선 패배”

작년 전대 땀 친윤계 초선 의원
연판장 돌려 나경원 출마 저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성남 시 분당갑 당원조직대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동훈 캠프

주말 사이 여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입십’(읽고 무시)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제2의 연판장’ 사태 움직임까지 일었다고 알려졌다. 한 후보는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2주 남짓 남은 전당대회의 화두로 떠오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스나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윤리위를 통해 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 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며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똑똑히 보시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과 함께 변화하겠다”고 했다.

해당 논란은 1월 19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가 김 여사에게서 ‘명품 가방 수수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이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4일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로부터 “한 후보가 김 여사의 사과 연락을 무

시해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한 후보는 6일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 나와 “공적인 의사소통과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려는 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일 국민의힘 일부 원의 인사들 사이에서 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론에서는 ‘제2의 연판장 사태’ 우려가 나왔다. 김종혁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모 후보와 가까운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일 오후 3시에 한동훈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할 건데 회견장에 참가한다, 이름만 올린다, 다 안한다 중 선택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 하고 계신 거냐”고 비판했다.

이른바 ‘연판장 사태’는 작년 3·8 전당대회 당시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저지했던 것을 말하며, 이는 여론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한다. 한 후보 등을 비롯해 여론 일각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다른 당권주자들은 기세를 몰아 한 후보를 비판했다. 나 후보는 “어설픈 공식-비공식 따지다 우리 당원과 국민, 총선 후보가 그토록 바랐던 김건희 여사 사과의 기회마저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원팀캠프 공보단은 “한 후보의 독



개원식 못 열고 교체되는 국회 개원식 현수막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제76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교체되고 있다.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연합뉴스

단적 의사결정, 해당 행위 때문에 안타깝게 패배한 격전지 후보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 후보의 ‘문자 입십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에 나와 “한 위원장 쪽에서 그럴

흘렸을 리 없다. 용산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정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분화에서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전대 개입 안했고 앞으로 안할 것”

대통령실 ‘입십 논란’ 입장 표명
한동훈 탓 총선 참패 논란 진화

대통령실은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이 낸 첫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1월에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 후보가 답장을 하지 않은 일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친윤계에선 “한 후보가 김 여사 사과의사를 무시해 총선 패배를 불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후보는 “(저에게) 상처를 입히고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비정상적인 전대, 당무개입으로 많은 분이 생각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문자 입십(읽고 무시)’ 논란으로 ‘당무개입’ 주장까지 나오면서 각 후보 및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격화한 셈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거리두기를 통해 전당대회 개입설 사전 차단과 갈등 완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영민 기자 oin@

尹, 美 인도태평양 사령부 YS 이후 첫 방문

나토 정상회의의 참석차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8~11일(현지시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인태사령부)를 방문한 뒤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경제 협력은 물론 글로벌 공조를 통한 ‘안보 강화’를 도모할 기회다. 인태사령부 방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며, 나토 정상회의의 참석은 3년 연속 이뤄졌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이슈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IP4’(Indo-Pacific 4) 간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IP4는 ‘AP4’(Asia-Pacific Partners 4) 대신 나토가 부여할 새로운 명칭이다. 새로운 명칭 부여는 인도양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나토 동맹국과 IP



4 간 협력 방안이 주목된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 ‘협력 공동문서’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러가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나의 일관된 안보(라는) 콘셉트에 집중하는 순방으로 계획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한국의 메시지 수위 조절이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를 압박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를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정영민 기자 oin@

‘어대명’ 맞서는 김두관… 당내선 원원 시각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10일까지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3선 실패 金 다시 이름 알릴 기회”
“추대보다 경선…일극체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을 준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주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등록 기간인 9·10일 출사표를 던진 후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후 예비후보자들의 기호 추첨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를 시작한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민심’을 강조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4·10 총선 민심에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다짐과 범야권 192석에 대한 책임감 등을 전할 예



김두관 전 의원

정”이라고 전했다.

당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등의 분위기가 만연한 와중에도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김두관 전 의원이 그러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선다.

김 전 의원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3선에 실패한 김 전 의원이 다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추대보다는 경선을 거치는 것이 보다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최고위원 후보들도 대부분 친명계(친이

재명계)로, 이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3선의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원내 4선의 김민석 의원, 재선의 강선우·김병주·한준호 의원, 초선의 이성운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박완희 청주시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의원은 “이 전 대표와 당내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상의했다”며 “계제 힘을 합치자고, 도와달라고 청했던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전대에서 민주당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8명의 후보를 추린 후에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서이원 기자 iwonsoo96@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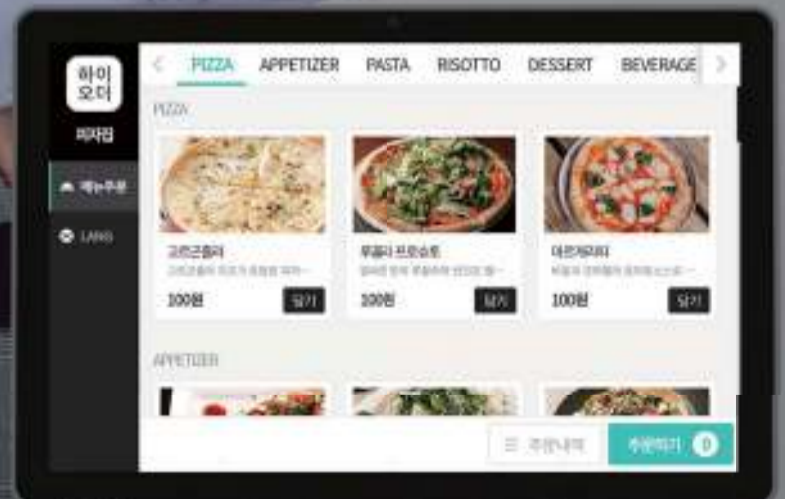
대한민국 사장님들

오라차차!

KT 하이오더와 신한은행이 최대 1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드립니다

KT 하이오더를 신규 개통한 사장님(개인사업자)들께 신한은행이 최대 100만원 현금을, KT가 최대 5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4월 26일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법인사업자, 개인은 지원 불가. 하이오더 기존 고객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상점 매장은 지원 불가. 신한은행 지원 사항 및 지급 조건은 신한은행 영업점, KT 지원 사항 및 지급 조건은 kt.com, 100번 통해 확인 가능



kt

2%대로 한숨 돌린 물가... 하반기 농산물값이 관건

〈상반기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상반기 2%대' 달성에 성공했다.

고물가 주요인인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이 하반기엔 안정세로 접어들면 올해 연간 물가가 2%(물가안정 목표치)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소비자물가(평균)는 전년보다 2.8% 상승했다.

6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4%를 기록한 것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로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에 성공했다. 앞서 정부는 1월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정에 역점을 두겠

정부, 상반기 2%대 달성 성공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기록

하반기 2% 초중반 안정화 예상

이상 기후 작황 피해 변수 여전

"작년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

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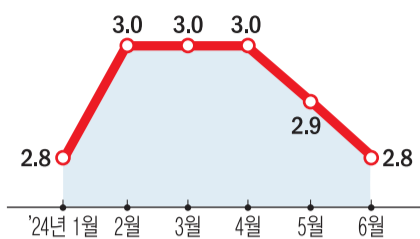
정부는 하반기 물가 흐름이 상반기보다 더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엔 물가가 2% 초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다. 지난달 과일 가격은 전년보다 30.8%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

(단위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나 올랐다. 특히 사과(63.1%)와 배(139.6%) 가격 급등세가 여전했다.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13.3% 올랐다.

이달 태풍이나 폭우 등 날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다만 정부는 작년 같은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불철

가뭄 및 폭우에 따른 농산물 작황 피해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선제적 비축 및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는 농산물 물가 급등의 주범인 사과·배 가격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과와 배 생육 상황이 양호해 내달을 기점으로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또한 3일 기준 과수화상병과 흑성병 발생 면적은 전체 면적의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과일류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을 우려하

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소비가 줄면 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21년(2.5%) 이후 3년 만에 2%대를 무난하게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0.5%에 불과했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5%로 고물가 흐름을 지속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반기 물가 안정세가 가시화하면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 결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제고돼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치솟는 기름값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일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9원 오른 리터(L)당 1682.2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28.7원 상승한 리터당 1515.0원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은 6월 첫째 주 이후 1500원대에 재진입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기재부 출신' 장관관 배치에 관가 술렁

장관급 3명 중 2명... 차관 비중↑ 전문성 우려·편중 인선 논란

제22대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에서 금융위원장에 이어 환경부 장관직까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꺾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기재부 중용' 기류가 이어지면서 타 부처에 진출한 기재부 인사의 전문성 우려와 편중 인선 논란 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7일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정무직 인사는 기재부의 약진으로 요약된다. 발표된 장관급 3명 중 2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각각 기재부 1·2차관을 지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주인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앞서 발탁됐던 김대기 전 대

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었다. 차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인사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나이(53)도 1971년생으로 젊은 편이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부처 내 반응은 엇갈린다. 김완섭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정계 진출 의지 등 '외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기재부와 협업이 필요한 환경 분야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환경 현안을 경제 논리에 치우쳐 접근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크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며 "예산에 정통하니 국정과제 이행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정부, 오늘 최종 결단 내린다

중대본 회의 개최... 처분방침 발표 복귀 위한 유인 추가책 유무 '주목' 사직서 수리 시점 해결 과제 남아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내용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의 경우 병원이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8% 수준인 1104명만 근무 중이다. 지난달 3일

과 비교해 근무 전공의는 한 달여간 9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라면 병원이 사직 처리해야 할 전공의는 1만2000여 명에 달한다.

레지던트 기준 전체 수련병원에서 사직이 처리된 것은 4일 기준 1만506명 중 61명(0.58%)으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 방안을 내놓는 배경은 이처럼 한 달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복귀율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턴과 레지던트는 관련 지침에 따라 9월 1일 선발된다. 각 대학 수련평가 위 사무국은 그날로부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공고를 내리면 복귀자·미복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이 담긴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가 타 병원에 같은 진료과목·연차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전공의가 사직하면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의료계 역시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연차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침 개정 등을 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사직서 수리 시점이나 행정처분 단계에 대한 이견도 정부와 의료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의료계는 퇴직금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병원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6월로 보고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향후 처분 재개 우려가 있는 중단이 아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맞물려 있어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 전공의 비중을 현행 40%에서 20%로 절반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전공의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군 진료 비중 등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지도 전문의 지정·수련비 국비 지원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메모리가 일냈다

134억弗 기록... 8개월간 고공행진 메모리 비중 2년 6개월 만에 최고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한국 수출의 고공행진을 이끈 가운데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34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살아나자 전체 수출 역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52%까지 떨어졌던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 65%를 넘기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는 점이다.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 134억 달러 가운데 65.8%를 차지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60%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에는 74.2%를 기록하는 등 '메모리 강국'의 면모를 보였다.

이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에 뛰어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커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실제로 2022년 메모리와 비메모리 수출 비중은 각각 57.1%, 42.9%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52.1%와 47.9%까지 격차를 좁히기도 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급격히 올라간 이유는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분야 수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가운데 메모리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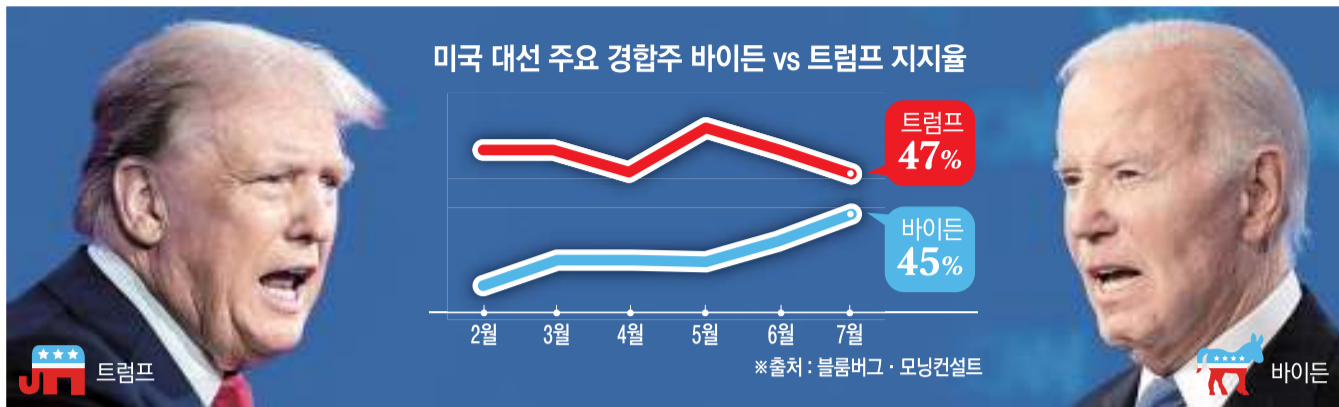
바이든 “주님이 원한다면 물러날 것”… 더 거세진 사퇴론

방송사 무편집 인터뷰·유세 등
고령 논란 정면돌파 강행군 불구
하원의원 5명, 공개 사퇴 요구
고액 선거자금 기부자 이탈 속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사퇴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선 사퇴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사퇴 요구가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주도 매디슨의 서면중학교체육관에서 유세한 뒤 ABC 방송과 22분간 무(無)편집 인터뷰를 했다. 사실상 당내 사퇴 요구의 단초가 된 참담한 TV토론 이후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전능하신 주님(the Lord Almighty)



이강립하셔서 ‘경주에서 물러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서는, 주님은 강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력과 건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나는 매일 (업무로) 인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7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9~11일) 참석, 이후 네바다주 유세 등 강행군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에도 공개 퇴진 요구 물결은 이어졌다. 하원에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한 앤지 크레이그 의원(미네소타)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13명 중 5명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일부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2개의 서한을 회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에서도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당내 의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모라힐리 매사추세츠주지사는 전날 민주당 소속 주지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액 선거자금 기부자들도 속속 이탈하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LA) 개발업자이자 전 LA 시장 선거 후보인 릭 카루소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좀 더 확신이 들 때까지 바이든 대

통령 재선 지원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러닝메이트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여러 인물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인지도나 영향력 측면에서 상대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적할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TV토론 뒤 여러 차례 확인된 바이든 대통령의 하락세와는 달리 경합주들에서 격차가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닝컨설팅과 함께 1~5일 7개 경합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에서 유권자 49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바이든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작은 격차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폭격 당한 유엔 학교... 겁에 질린 아이들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난민 피난처로 쓰이고 있는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학교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뒤 겁에 질려 울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가자지구 당국은 공습 당시 약 7000명 난민이 학교 건물을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경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 내부 특정 장소를 표적으로 삼았다. 가자(팔레스타인)/AFP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자 30% “하반기 中·인 주식 뜬다”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에 ‘훈풍’
日, 아시아 시장 수익률 3위 전망

올해 하반기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인도 주식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19명의 아시아 섹터 전략가와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향후 6개월 동안 중국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응답률로 인도가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 2위와 큰 격차로 3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중국과 인도 주식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은 올해 초 강세장을 이어오다 주요 경제지표 부진 영향으로 최근 몇 주간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주식이 저평가된 데다 당국의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선호 이유로 꼽았다. HSBC홀딩스의 헤럴드 반 더 린데 아시아 주식전략가는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심리가 천천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의 경제활동이 느리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하반기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주식시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확정 지은 이후 랠리를 펼쳤다. 모디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안도감이 훈풍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인도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약 6912조 원)를 돌파했다. 영국 자산운용사 애버딘(ABRDN)의 레이샤르마웅 동남아시아 멀티에셋 투자 솔루션 책임자는 “(인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또한 인도 주식이 미·중 갈등과 미국 대선의 파급 효과로부터 가장 안전한 주식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정권교체’ 英, 사상 첫 女재무장관에 ‘쏟아진 눈’

중앙銀 출신 경제학자 ‘리브스’
기업·시장 친화적 정책 가능성
“재정부족에 과감한 시도 못할 것”



년부터 2006년까지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은행 현 총재가 그의 상사였다고 전해졌다.

지난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휘청이는 영국 경제의 새 사령탑이 된 레이철 리브스(사진) 신임 재무장관에게 쏠려 있다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는 5일 취임 후 내각 주요 장관 인선을 발표했는데 리브스는 영국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다. 영국은 지금까지 3명의 여성 총리를 배출했지만, 재무장관 자리에 여성이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옥스퍼드대학 출신의 리브스는 미국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의 입사 제의를 거절하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을 첫 직장으로 삼아 2000

일본 니혼게이지자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리브스는 잉글랜드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경제학자로서 거품경제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당시 일본이 신속하게 성장을 촉진하지 못한 것을 장기 경기침체 원인으로 꼽았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경쟁사인 로이즈TSB에 매각된 헬릭스뱅크오브스코틀랜드(HBOS)에서 2009년까지 근무하고 나서 2010년 정계에 입문했다. 노동당이 좌파이지만 ‘친기업 노선’을 내세우는 가운데 리브스도 노동당의 그림자 내각 재무장관으로서 일찍부터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닛케이 “리브스 재무장관은 말투가 강경한 스타일”이라면서 “강한 여성 정치인으로 한때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별명처럼 리브스는 ‘철의 재무장관’ 분위기를 풍긴다”고 평했다.

NYT는 리브스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현대적 공급 측면 경제학’에 영감을 얻어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과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자국에 투자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끈다는 것이 골자다. 옐런은 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리브스가 옐런의 정책을 따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NYT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옐런 장관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시행할 재정적 뒷받침이 있지만 이와 달리 영국의 노동당은 그렇게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돈이 없다”면서 “영국 정부의 부채는 1960년대 초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쿠데타’ 서아프리카 3국, ‘사헬국가연합’ 창설 합의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군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탈퇴 재포명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3국 군부 지도자들이 ‘사헬국가연합(AES)’ 창설에 합의했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아시미 고이타 말리 대통령과 이브라힘 트라오레 부르키나파소 군정 임시 대통령, 니제르 군정 수반인 압두라흐마네 티아니 장군은 이날 정상회담 후 성명을 통해 AES를 수립하는 조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상호방위조약인 사헬 국가동맹(ASS)을 체결한 데 이어 결속이 더욱 진전됐다.

서아프리카 사헬(사하라 사막 남쪽 주변) 지역의 이들 3국은 1월에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탈퇴 의지를 나타낸 데 이어 이날도 이를 강조했다. 이들은 ECOWAS가 프랑스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원을 탈취하고 있다고 본다.

말리는 2021년 8월, 부르키나파소는 2022년 9월, 니제르는 2023년 7월 각각 쿠데타가 발생한 후 군부가 집권하기 시작했다. 3국은 모두 식민통치를 한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과의 군사 방위 관계를 끊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군은 2022년에 말리에서 철수를 완

료한 데 이어 작년에는 니제르와 부르키나파소를 떠났다.

미국도 지난주 초 “니제르 제101 공군 기지에서 7일까지 미군 약 1000명 철수를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또 현지 무장단체의 정보를 수집해 온 1억 달러(약 1383억 원) 규모의 별도 드론 기지를 철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신 니제르는 올 1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부르키나파소에는 러시아군이 배치돼 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태가 여전히 잇따르는 등 3국 연합이 7200만 명의 거주자들의 삶에서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자원·인프라 개발 먹거리에... G2 이어 글로벌사우스 '군침'

新시장 선점 '불꽃경쟁'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까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을 위해 불꽃 튀는 선점 경쟁이 나서고 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앙골라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등과 공동으로 앙골라,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을 잇는 철도를 정비하는 '로비토 회랑' 사업을 추진한다.

로비토 회랑은 앙골라 대서양 연안에 있는 로비투 항구와 광물 자원이 풍부한 잠비아와 DR콩고를 연결하는 약 1300km의 철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앙골라로서는 최초의 다자간 프로젝트다.

미국은 2022년 12월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고위급 정부 인사를 아프리카에 활발히 파견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17명의 고위급 인사가 아프리카 대륙 26개국을 방문했다. 올해

美·EU '로비토 회랑' 철도사업

중은 인프라 개발·경제협력 등 영향력 넓혀 광물 공급망 확보 사우디·브라질, 투자·농업협력

에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서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등 계속되고 있다.

중국도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인프라 개발과 경제 협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에티오피아, 잠비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접근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패권주의가 엿보인다고 닛케이가 짚었다. 일례로 콩고 민주공화국은 코발트 생산량에서 세계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그중 99%가 가공·정련을 위해 중국으로 보내진다.

다만 '부채의 덫'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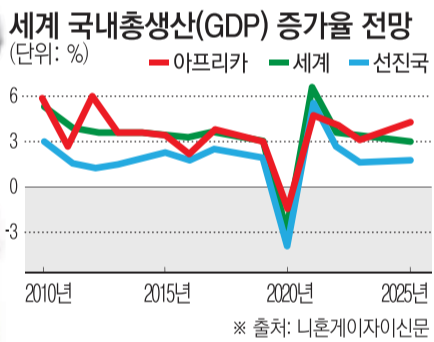
다. 중국의 수법은 인프라 개발 등을 대가로 거액의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갚지 못하면 항만, 광산 등 권익을 빼앗는 것인데,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프리카 쟁탈전에 나선 것은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나섰다.

사우디는 작년 11월 처음으로 아프리카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펀드를 통해 아프리카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식량 안보를 염두에 둔 농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이후 세하도 지역 농경지 개발을 통해 식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한 경험을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현하려 하고 있다.

노모토 다카야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전무이사는 "아프리카는 2050년 인구 약 25억 명의 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관계를 강화해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어나는 농업, 통신, 금융 등의 분야에서 특히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아프리카 각국이 풍부한 자원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균형 잡힌 아프리카의 성장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색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를 시장으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신재생 핵심 '구리벨트'에 쏠린 눈

전기차 배터리 필수 구리·코발트 잠비아·DR콩고 주목...투자 활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자자동차에 빼놓을 수 없는 구리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중부 내륙의 잠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걸친 구리 벨트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소개했다.

잠비아는 세계 9위 구리 생산국으로, 연간 80만 톤(t) 구리를 생산한다. 잠비아 정부는 2031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300만 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계 2위 생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리 벨트에는 전기차용배터리 등에 필수적이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코발트도 많이 매장돼 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과 미국, 중국 등 주요 소비국들은 잠비아에서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미국 스타트업 코볼드메탈스는 잠비아 북부에서 거대 구리 광산을 발견했다. DR콩고에 있는 세계적인 카쿠라 광산에 필적하는 규모로, 회사는 8년 내 생산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을 통해 흙의 입도나 점도 등의 정보를 수집해 광물을 높은 정확도로 찾아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 퀀텀미네랄스는 잠비아 북부 광산에서 구리를 증산하고자 12억 5000만 달러(약 1조7354억 원)를 투입했다. 회사는 지난해 13만5000톤이었던 구리 생산량을 2026년까지 최대 21만 톤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프리카 중남부 구리 광산과 교통로 개발 현황



중국도 잠비아에서 분주하다. 잠비아에서 구리 광산 조업을 하는 국영기업 중국 유색광업집단지원공사(CNMC)는 향후 5년간 13억 달러를 현지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구리 제련 기업인 장시 동업집단지원공사는 퍼스트퀀텀과 5억 달러 상당의 구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폴 카부스웨 잠비아 광산·광물 개발 장관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리나 코발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잠비아는 어떤 나라의 투자도 환영한다. 구리 생산을 연간 300만 톤으로 끌어올리려면 전력 인프라, 교통망 정비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 GMEC)는 잠비아와 DR콩고 등에서 최첨단 인공위성을 활용해 현지 정부와 자원 탐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륙에 있는 구리벨트의 수송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 정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잠비아, DR콩고와 대서양 해안에 있는 앙골라 로비토 항구를 잇는 철도노선 '로비토 회랑'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보 상 계 획 공 고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장안4.5,8리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장안4.5,8리 진입로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0-1번지 일원
- 사업규모 및 기간 : 사업면적:9,934㎡, 실시계획인가일 ~ 2026-12-31
- 편입토지 : 46필지 (9,934㎡, 국공유지 18필지 7,328㎡포함)
- ※ 편입지번 및 면적은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7.8.(월) ~ 2024.7.22.(월)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3부 (전화 031-290-32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이의동, 다이아빌딩 6층) 화성시 도로과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3. 보상의 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감정평가 : 24년 9월경, 협의계약 : 24년 10월경

4.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하되 예산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진행

5.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서(양식-예시) ▶

토지 소재지	지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납입(서명)	전화번호(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법인 등
			주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납입(법인 및 중종의 경우 직인 납입) 하셔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첨부)

6. 기타 사항

-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의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주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분묘연고자 및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3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제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주셔서 보상관련 각종 우편물 발송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 사업명 : 장안4.5,8리 진입로 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성명	성명	관리관계
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87-2	1287-47	도	614	162	1/1	화성시		
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79	1436-101	도	222	38	1/1	기획재정부		
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9	1436-102	임	61	57	1/1	우·수		
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0	1436-107	임	60	47	1/1	기획재정부		
5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87-1	1287-46	도	138	109	1/1	화성시		
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92	1436-109	임	60	22	1/1	우·수		
7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7	1436-87	목	98	98	1/1	우·수		
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87-8	1287-48	전	198	91	1/1	우·수		
9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91	1436-108	임	75	61	1/1	우·수		
1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90	1436-90	임	61	61	1/1	우·수		
1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87	1287-45	전	2017	32	1/2	양·군	조영농협	근저당, 지상권
1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8	1436-106	목	797	70	1/1	우·수		
1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6	1436-6	임	73	73	1/1	기획재정부		
1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88	1288-1	묘	1180	44	1/1	감·전		
15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89	1289-1	전	714	356	1/1	장·촌		
1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8	1436-106	목	797	70	1/1	우·수		
17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8	1436-106	목	797	70	1/1	우·수		
1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8	1436-106	목	797	70	1/1	우·수		
19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90	1290-1	전	1012	482	1/1	박·철	조영농협	근저당, 지상권
2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91-2	1291-4	전	704	126	1/1	박·훈	광명농협(명촌지점)	근저당
2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9	1279-1	전	182	154	1/1	장·수	안양축협(명촌지점)	근저당권
2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8-3	1278-6	임	1056	2	11/27	장·수	안양축협(명촌지점)	근저당권
							8/27	장·미		
							8/27	장·미		
2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8-3	1278-7	임	1056	24	11/27	장·환	안양축협(명촌지점)	근저당권
							8/27	장·미		
2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91-2	1291-5	임	946	41	1/1	박·희		
25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1	1436-104	대	430	2	1/1	감·분		
2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436-82	1436-105	대	100	2	1/1	박·훈	신기농협(장안지점)	근저당
27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8-2	1278-9	임	46	46	1/1	박·훈	광명농협(명촌지점)	근저당
2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8-2	1278-9	임	670	102	1/1	아·옥	수원화성오신축협	근저당, 지상권
29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8-4	1278-4	도	549	549	1/1	경기도		
3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94-4	1294-4	도	525	478	1/1	경기도		
3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8-1	1278-8	전	462	68	1/1	아·성		
3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118	1118	도	9588	863	1/1	경기도		
3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3-1	1273-8	임	3648	247	1/1	감·여	발안농협	근저당
3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1-1	1271-1	도	6610	1087	1/1	경기도		
35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2	1272-3	임	1000	111	1/1	아·성		
							1	1/1		
3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5	1275-1	전	1884	28	1/1	장·숙		
37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70-1	1270-1	도	2616	1442	1/1	경기도		
38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57	1257	도	1557	26	1/1	경기도		
39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96-1	1296-1	도	41	5	1/1	경기도		
4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67-3	1267-3	도	2292	956	1/1	경기도		
4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67-2	1267-2	도	176	79	1/1	경기도		
4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66-1	1266-1	도	844	284	1/1	경기도		
4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65	1265	도	1022	298	1/1	경기도		
44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64-5	1264-5	도	1591	72	1/1	경기도		
45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94-3	1294-7	전	206	25	1/1	박·훈		
4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294-1	1294-6	전	3762	34	1/1	감·남	감·영	근저당

2024. 7. 8.

화 성 시 장 · 한 국 부 동 산 원 장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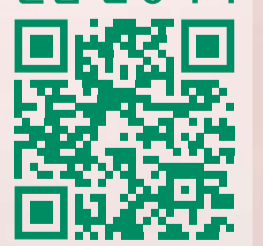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갤Z6·워치7·버즈3·링... 파리에 'AI 새로운 경험' 펼친다

삼성전자, 10일 '갤럭시 언팩'

루브르박물관 쇼핑센터서 열려 AI 기능 탑재 폴더블폰 등 선보여 카톡 등 앱서도 실시간 통역 지원 '갤럭시 링' 자세한 모습도 공개 가격 49만원대... 갤럭시 보완 기대

삼성전자가 10일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한다. '폴더블폰' 선두주자인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관심을 모았던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도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삼성전자는 10일 오후 3시(한국시간 10일 오후 10시) 프랑스 파리에서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스마트폰 갤럭시Z6 시리즈와 갤럭시 워치7,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 버즈3 시리즈 등 총 6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후원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언팩 행사에서



전 세계 7곳에 '갤럭시 체험공간' 마련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 직후, 갤럭시 신제품과 새로워진 갤럭시 AI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운영한다. 서울,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7개 도시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10일부터 운영한다. 큰 시진은 2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에서 열린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위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W100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워치7'. 아래는 2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공개된 갤럭시 링.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 직후, 갤럭시 신제품과 새로워진 갤럭시 AI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운영한다. 서울,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7개 도시에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10일부터 운영한다. 큰 시진은 2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에서 열린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위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W100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워치7'. 아래는 2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공개된 갤럭시 링.



는 신제품 공개 뿐 아니라 '올림픽 체험관'과 '올림픽 개막식·경기 생중계' 등 올림픽과 연결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루브르 박물관 아래에 위치한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 쇼핑센터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제품은 갤럭시의 새로운 폴더블폰인 '갤럭시 Z플립6'과 '갤럭시 Z폴드6'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폴더폰을 둘러싼 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삼성전자의 이번 제품은 큰 주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은 이전 제품에 비해 더 가볍고 얇아질 전망이다. 갤럭시 Z플립6은 Z플립5에 비해 1mm 얇아진 12.1mm, 무게는 14g 가벼워진 239g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용량도 300mAh 늘어난 4000mAh로 예상되며, 후면 카메라도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은 이전 제품보다 약 10만 원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용량에 따라 갤럭시 Z플립6과 갤럭시 Z폴드6의 최고가는 각각 165만 원, 300만 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개될 새로운 폴더블폰 제품에는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다. 갤럭시 전화 기능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 제3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실시간 통역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간 Z

플립 시리즈에는 8GB램이 탑재됐는데, 이번 제품에는 고효율 연산인 AI 기능을 위해 갤럭시Z플립 시리즈 중 최초로 12GB램이 들어갈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폴더블폰과 함께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의 자세한 모습이 공개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 등을 공개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이 제품은 장시간 착용이 불편한 갤럭시 워치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능은 정확한 수면 패턴을 추적, 분석하는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49만원대로 알려졌다.

다른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워치7'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nm) 공정으로 만든 스마트워치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W1000'이 탑재된다.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이전 모델보다 뛰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웨어러블에 특화된 AI 기능인 혈당 측정이 탑재돼 손목 혈관을 갤럭시 워치 센서가 감지하고, 이 정보를 갤럭시 AI가 분석해 사용자 혈당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수진 기자 abc123@

'집덕후' 놀이터 오픈... 집서 다 한다 LG전자, Z세대 짠크들과 소통 확대

LG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짠크'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에 나선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에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홈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라이프집(Lifezip)'의 첫 팝업스토어 '라이프 집 집들이'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집덕후들의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라이프집은 집에서 즐기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공유하며 고객의 삶이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우리는 집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라는 메시지 아래 요리와 가드닝, 아트, 엔터테인먼트 등 홈라이프스타일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민음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백화점 등 브랜드 철학이 통하는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2022년 말 온라인에서 출발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공식 회원 수 18만 명을 돌파했다. 그중 2030 세대의 비중이 70% 이상이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홈 카페 △홈 가드닝 △홈 스튜디오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룬다.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라이프집으로 고객들을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아 '집들이'를 콘셉트로 잡았다.

임수민 포토그래퍼, 조인혁 디자이너 등 각 분야 인플루언서와 브랜드는 물론, 전문가 수준의 안목을 가진 일반 회원들도 협업 파트너로 참



LG전자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홈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라이프집'의 첫 팝업스토어 '라이프 집 집들이'를 오픈했다.

사진제공 LG전자

성수동에 '라이프집' 첫 팝업스토어 문열어 커뮤니티 18만회원 중 2030세대 70%이상 제품·서비스 넘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진행

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스탠바이미, 틱톡, 슈케이 등 집에서 각자 취향에 맞춰 사용하는 LG전자 가전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연채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장은 "라이프집은 운영 초기 기업 로고나 사명을 노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콘텐츠와 적극적 소통 방식으로 많은 고객들의 지지를 얻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한상의 "2040년 2910만명으로 '뚝' 인력부족 해결 이민정책 전환 시급"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으로 내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대한상의는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 명→2040년 2910만 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 명에서 2070년 3771만 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에서 2070년 1791만 명(49.9%)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2012년), 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 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가능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실제 독일 연

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에 그쳤지만,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해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2010년 8000만 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했다.

결국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 올해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력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현대백, 셋째이상 출산축하금 1000만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 복리후생 확대 남성 직원 휴아휴직시 임금 보전도

현대백화점은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출산축하금을 상향한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임신부에게 필요한 엽산, 종합비타민, 마더마사지 오일 등도 축하 선물로 제공한다. 임신 준비 직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연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 지급했지만, 이제는 근속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또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 국한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쳐 선조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해 이목을 끌었다. 2017년 임신 전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다.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남성 직원이 육아 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 준다. 이와 함께 만 4~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에게 최대 1개월간 1일 2시간(반반차)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민왕일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은 "사회적 화두가 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삼성·SK 반도체 영업이익 11조… 메모리 업사이클 진행중”

〈2분기〉

삼성 DS 2분기 잠정영업익 6조
SK하이닉스 5조 ‘우상향’ 전망

메모리 2025년까지 공급 부족
가격 상승 이어져 하반기도 기대
“올해 반도체 호황기로 기록될 것”

삼성전자가 2분기 ‘깜짝 실적’을 거뒀다. 곧 실적이 발표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비교해 두 회사 모두 반전 실적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호황기로 진입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이라는 실적을 공

개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거둔 영업이익만 6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SK하이닉스도 조만간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6조1000억 원, 5조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 반도체 생산으로 기록한 영업이익만 총 1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 간 침체된 반도체 시장이 ‘적자 실적’에서 탈출해 드디어 상승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호실적을 기록한 2분기의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져 올 한해 ‘반도체

호황기’로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한국투자증권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실적은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메모리 업사이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메모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실적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D램 공급 부족 현상은 2025년까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HBM 시장은 전년 대비 약 4배 성장한 184억7000만 달러(한화 약 25조

4380억 원)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도권은 SK하이닉스가 쥐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부터 HBM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AI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두 회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에 HBM3E 8단과 12단 제품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엔비디아가 곧 삼성전자의 HBM3E 인증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삼성전자는 HBM 부문에서도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HBM 시장 1위를 수성하고 있는 SK하

이닉스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민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향 HBM3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고 HBM3E 8단 양산 수율이 70%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 하반기 실적 개선 가속화가 기대된다”며 “수율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은 가격 협상력 확보 및 고객사 다변화 시기에도 경쟁사 대비 한발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HBM3과 HBM3E, 차세대 제품인 HBM4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컴퓨터스프레싱크(CXL)’와 관련해 제품 인증을 마치는 등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자 위치를 노리고 있다.

이수진 기자 abc123@

바이오신약·글라스기판 사업 힘 실어준 최태원

SK바이오팜·SKC 美 자회사 방문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현지법인을 잇달아 찾아 반도체 소재, 바이오 등 미래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일 SK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CEO들과 연쇄 회동한 최 회장은 미국 동부로 이동해 SK바이오팜과 SKC 자회사인 애플릭스를 방문했다.

뉴저지에 있는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SK바이오팜의 뇌전증 혁신 신약인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직판 상황 등을 점검했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최근 총 처방 환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뇌전증 영역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글로벌 빅파마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표적단백질분해치료제(TPD)의 핵심기술 보유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를 지난해 인수한 뒤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태원(오른쪽) SK 회장이 미국 뉴저지 소재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최 회장은 구성원들을 격려하면서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추진이 국가안보정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조지아주 커빙턴시에 위치한 애플릭스를 찾아 세계 최초 글라스 기판 양산 공장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애플릭스는 SKC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을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다.

글라스 기판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반도체 패키지의 데이터 속도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둔 글라스 기판은 하반기 중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고순도 유리 기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출장 중 만난 빅테크 CEO들에게 글라스 기판의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며 세일즈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경영전략 회의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AI 관련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며 SK그룹의 역량을 활용한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toto@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에 전시된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모형. 사진제공 한화오션

8조원짜리 차기구축함 사업 HD현대·한화, 여론전 격화

기본 설계한 HD “수의계약”

한화 “법률상 경쟁계약이 원칙”

양사 지역 국회의원까지 가세

8조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특정 계약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사업 주체인 방위사업청은 “아직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섰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들여 6000톤(t)급 이지스함 6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단순 사업비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등 경제적 낙수효과만 천문학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합정 초안을 그리는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무기체계를 더욱 구체화한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인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조선포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설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화오션은 관련 법률상 명백히

경쟁계약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방위사업관리규정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권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화오션 측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방사청이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 매체는 전날인 6일 “KDDX 사업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즉각 이를 부인하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양사 소재지인 거제와 울산에서도 주머니 받거나 사업 수주를 위한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의원은 3일 KDDX 사업 계약체결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방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시의회도 지난달 27일 ‘KDDX 사업 공정 경쟁입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5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HD현대중공업의 KDDX 선도함 사업 연속 수행을 공동 결의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HD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K-방산 수출 기업이자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KDDX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해운 호황기에 찬물 끼었나…정부, 세율 인상 검토

선박 무거운 운항일에 세금 부과
업계 “해외 대비 세율 높은 데다
최근 선복량 늘어 부담 가중”
기재부 “세율 인상 결정된 바 없어”

정부가 연말로 종료 예정인 톤세제도 5년 연장과 더불어 톤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실제 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톤세제도와 관련해 일몰 5년 연장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한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

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에 2005년 톤세제도 일몰제가 제정된 후 5년에 한 번, 총 3차례 연장됐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상운임이 급등하며 HMM 등 일부 국내 해운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자, 타 업계와 조세 형평성이 거론되며 톤세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 세계의 해운 강국들 대부분이 톤세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일몰 연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톤세율은 2005년 제정 이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톤세율 인상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업체들은 유럽 등 다른 해운 강국들 대비 높은 톤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글로벌 선사들 중심으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

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국내 해운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틱국제해운협회(BIMCO)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글로벌 선사들의 전체 선복량은 2023년 말 대비 약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MM 역시 이에 발맞춰 올해 말까지 총 81만TEU(1TEU=20피트)인 선복량을 100만TEU까지 늘리고, 2026년까지는 120만TEU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톤세율이 오르면 이러한 투자 집행 계획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톤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기재부에서 올해 진행하는 조세 특례와 관련한 심층평가 대상이 많아 예정보다 시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추후 나올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톤세제도와 관련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2030년 글로벌 시장 전망〉

허은 “ESS 솔루션으로 350兆 전기화 시장 정조준”

〈이온어스 대표〉

차체 개발 ‘MoBatt’ 배터리팩 발전기 대체·전기차 충전 가능 3년 만에 이노비즈인증 획득 美 노크...“올 매출 300억 기대”

“저희가 개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솔루션이 K배터리의 위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2030년 세계 전기화 시장이 약 350조 원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서 1%만 점유해도 4조 원의 매출이 가능합니다.”

허은 이온어스 대표는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4일 개최한 ‘제3차 이노비즈 PR-day’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노비즈 PR-day는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우수성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미디어 현장 방문 및 심층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노비즈인증 관리기관인 이노비즈협회가 공모를 통해 우수 이노비즈기업을 직접



‘제3차 이노비즈 PR-day’에서 허은 이온어스 대표가 4일 새롭게 개발한 대용량 배터리팩 MoBatt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노비즈협회

발굴·선정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작한 이래 5월까지 총 20개사를 지원했다.

올해 방문한 이온어스는 이동형 ESS 및 전기자동차 충전 등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제조기업이다. 2020년 회사 설립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이노비즈인증을 획득해 기술혁신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온어스가 개발한 이동형 ESS는 고정형 ESS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발전소에 설치하는 고정형 ESS 규모를 최소화하고, 필요에 따라 이동형 ESS를 투입해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수요 초과전력 생산분도 이동형 ESS에 저장해 다양한

곳으로 이동·공급할 수 있다.

이온어스 ESS의 강점은 안전을 확보한 것이다. 이온어스는 자동차의 주행 중 지속 발생하는 진동, 충격 등에 태생적으로 최적화된 배터리를 사용해 이동형 ESS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개발한 제품이 이온어스의 ‘MoBatt’ 배터리팩이다. 올해 5월 선보인 이 배터리팩은 55킬로와트시(kWh) 용량으로, 이동형 ESS 분야에서는 최초로 ‘KC62619’ 제품 안전 인증을 취득했다.

이온어스의 주력 제품은 야외행사, 공사현장, 재난현장 등에서 디젤발전기 대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디고 모바일(indego MOBILE)’과 전기차를 대상으로 이동 방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디고 차지(indego CHARGE)’다.

인디고 모바일은 1톤(t) 전기 트럭에 55kWh 용량의 ‘MoBatt’ 배터리팩 2개를 탑재하고, 최대 50킬로와트(kW)로 전력을 공급하는 차량이다. 인디고 차지는 인디고 모바일과 같은 배터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50kW 출력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탑재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에서 출시한 ST1 전기 트럭에도 인디고 차지를 탑재했다.

제갈명식 이온어스 마케팅담당 상무는 “최근 한 축에서 인디고 모바일을 통해

총 500kWh의 전력을 공급했고, 디젤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600kg의 온실가스를 줄였다”며 “올해 6월부터 발효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 이온어스의 인디고 모바일이 이런 변화에서 가장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온어스는 올 하반기 컨테이너 방식의 330kWh ESS인 ‘인디고 스테이션(indego STATION)’과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인디고 비스포크(indego BESPOKE)’를 선보일 계획이다.

허 대표는 “국내 경쟁사들은 대부분 전기차 급속 충전에만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은 대부분 전력 품질이 한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기 대체용의 기술들만 가지고 있다”며 “이온어스는 ESS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ESS 발전기 대체, 전기차 충전 등 모두 가능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현대코퍼레이션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토런스에 지사를 설립했고, 미국 시장을 이미 두드리고 있다”며 “올해에는 작년(30억) 매출보다 10배 가까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AI CANDO

새학기 공부 자신감의 비밀!

아이캔두

기초부터 최상위권까지 새학기 성적 향상은 아이캔두 하나로 끝!

초등 공부, 아이캔두 하나로 OK!

무료체험하고 선물받기

학교 공부 실력 UP
초등 교과 완벽 연계

공부 자신감 UP
1:1 맞춤 관리

자기주도학습 UP
AI 학습 솔루션

비에이치아이, 수주잔액 8000억 넘어

탈탄소 속 천연가스 발전 집중

발전용 기자재 기업 비에이치아이(BHI)가 초대형 계약 해지에도 수주잔액 8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 발전 퇴출 흐름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 등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에이치아이의 수주잔액은 8000억 원 내외의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포모사 중공업 계약을 빼면 1분기 수주잔액 7000억 원 정도로 집계된다”라며 “이후 공개한 수주 등을 포함하면 8000억 원에 근접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1분기 수주잔액은 9202억 원으로 포모사의 계약 2300억 원을 빼면 6900억 원이고, 이후 도시바플랜트시스템에서 서비스와의 1194억 원 계약을 더하면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비에이치아이는 발전소 공정·제철공정에 필요한 발전용 기자재를 설계·제작·설치·시공하는 발전 기자재 전문기업이다. 주요 고객은 한국전력 등 전력회사와 발

전사업자, 국내외 대형건설사, 포스코를 포함한 제철회사 등이다.

이 회사는 탈 탄소 움직임과 함께 화력 발전소의 퇴출 흐름 이후 천연가스를 활용한 복합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HRSG) 등의 수요 증가로 지난해 실적이크게 개선됐다. 연결기준 매출은 36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1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분기엔 매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환율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1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시장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 과도기에 따라 천연가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HRSG 시장 규모는 2022-2030년 연평균성장률(CAGR) 3.5%로 성장해 2030년 11억 달러(1조52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수요 증가, 가스 발전소(CCGT) 증가에 따른 효율성 개선에 관한 관심 등이 시장 성장의 이유로 꼽힌다. 김우람 기자 hura@

중기부 ‘매출 6000만원’ 소상공인까지 전기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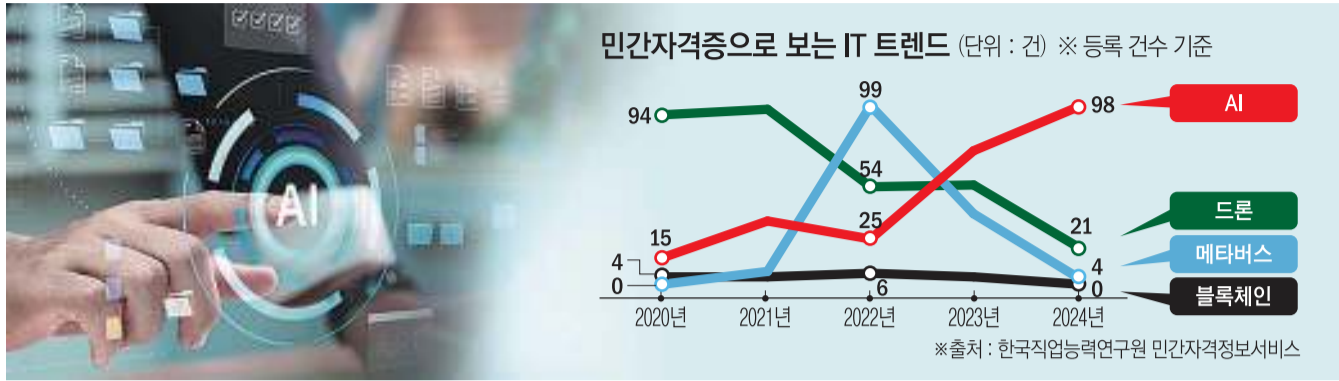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예정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우후죽순’ AI 민간 자격증 벌써 284개... 취업효과는 ‘글썴’

올해에만 새 자격증 98개 생겨 SW 개발·업무활용 능력 검증... 실제 채용과 연결되는 경우 적어 실무형 AI전문인력은 품귀현상 메타버스·드론 자격증 감소 추세



국내에 인공지능(AI) 관련 민간 자격증이 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높아지면서 올해만 98건의 새로운 자격증이 생겼다. 다만 범람하는 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양새다.

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4일 기준 AI 관련 민간 자격증은 28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98건, 2023년 75건, 2022년 25건 등으로 올해 급증세를 보였다.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부터,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능력 자격증, 생성형 AI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도사·콘텐츠 강사 등 갖가지 자격증이 넘쳐난다.

KT가 발급하는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SK이노베이션이 발급하는 ‘스카다(SKills for Ai&Data Analytics·SKADA)’ 등 기업에서 직접 채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격증도 있다. 다만 수백개에 달하는 시중의 민간 자격증이

실제 채용과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AI 기술 기업은 채용 시 경력과 직무 관련 경험을 가장 중시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는 학벌보다는 전공, 실제 개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에 실제 투입될 실무형 AI 전문 인력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2023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응답기업 2354곳이 인력 채용 시 가장 많이 고려

하는 사항은 ‘경력, 경험’으로, 비율도 50.3% 압도적으로 높았다. 뒤이어 △보유 기술 18.5% △전공학과 12.1% △태도/성격 11.3% △학력 6.7% △자격증 1.1%로 집계됐다. 특히 AI 서비스 기업에서 자격증을 보는 비율은 0.8%, AI HW(하드웨어) 기업은 0%에 불과했다.

이달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 AI기반 공급망관리 SW기업 엠로에서는 AI 관련 직군 채용 우대사항으로 국가 공인 자

격증과 생성형 AI 관련 지식·경험 보유자를 꼽았다. 엠로 관계자는 “AI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정보처리기사 및 데이터 분석전문가(ADSP)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엠로의 AI 솔루션은 구매와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AI뿐 아니라 구매 SCM(공급망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분이면 좋다”고 말했다.

IT업계의 인력 수요와 트렌드에 따라 관련 민간 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VR(증강현실), XR(확장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2022년에는 메타버스 관련 민간 자격증이 99건 새로 등록 됐다. 반면 올해 등록된 메타버스 민간 자격증은 4건에 불과하다. 2021년에 97건으로 급증했던 드론 관련 자격증은 2022년 54건, 2023년 55건, 올해 21건으로 뚝 떨어졌다.

안우리 기자 inglass@



KT가 고려대학교와 AICT(인공지능·정보통신 기술) 응용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승필(왼쪽부터) KT 기술혁신부문 부부장, 김영섭 KT 대표,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유혁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KT

KT·고려대, AICT 응용기술 개발 ‘맞손’

(인공지능·정보통신)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협약

KT는 고려대학교와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CT 응용기술의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술완성도 제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신속·실질적 협업을 위한 KT-고려대 공동 연구개발센터 설립 △산학연구개발용 그래픽처리장치(GPU) 공동 활용 등을 포함한다.

양측은 AI 기술과 관련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학계와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오승필 KT 기술혁신부장과 유혁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교수를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연구소장으로 선임한다. KT와 고려대학교는 각 3명씩 총 6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AI 응용기술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KT와 고려대학교는 산학연계형 기술개발을 통해 AI 분야의 기술력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표 과제로 한국형 특정 산업 영역에 효과적인 거대언어모델(Vertical SLM) 기술 개발,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 학습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것을 교정하거나 삭제하는 기술), 언어 모델

혼합(Model of Mixture, 복수 기종 SLM 모델의 최적 탐색에 대한 연구) 등을 선정했다. 2025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연구개발센터는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서울시 서초구 KT 우먼 사옥 내 스마트 오피스 컨셉으로 조성된다. 개인 연구 공간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KT는 자사가 보유한 GPU 자원 및 외부 인프라로 과제 특성 및 소요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GPU를 활용해 AI 벨류체인의 전반적인 성능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대학 자체 LLM을 보유해 우수한 AI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KT는 고려대와 실제 적용 가능한 개발 협력을 통해 고객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산업계를 혁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AICT 기업으로의 위상을 확립해 대한민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은 “AICT 컴퍼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고려대의 우수한 연구력이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과 대학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입금제한’ 등 이용자에 불리한 조항 거래소, 내주 첫 시행 법에 포함 공정위, 과거 30일 전 공지 권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한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준비는 미흡한 모습이다. 새로운 법이 적용됨에 따라 약관 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하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여태 관련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9일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이용약관 개정 공지에 나섰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개정된 약관 안에 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팍스는 지난달 7일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공지했지만, 가상자산법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빗썸은 이용약관 개정 공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모두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선했다. 일례로 업비트는 지난달 19일 이용약관 개정 안내를 하면서 제17조(이용제한 등)에 새로운 조항을 신선했다. 일례로 개정된 업비트 이용약관 제17조에는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입금 제한이나 출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 개정에 대한 조치가 한 달 전인 지난달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현재 공지를 안한 거래소들도 결국 다른 거래소들과 비슷한 내용의 약관 개정이 이뤄진다면 가상자산법 시행 시기와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원화 거래소 중에서는 빗썸만이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서 약관 개정이 안 된 상태다.

코인 거래소 이용약관 개정 ※ 출처: 각 거래소

거래소	약관 개정 일자	주요 개정 사항
업비트 (UP)	6월 19일 공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6조 제1항에 따른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 가능한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코인원 (C)	6월 20일 공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라 중단된다
코빗 (korbit)	6월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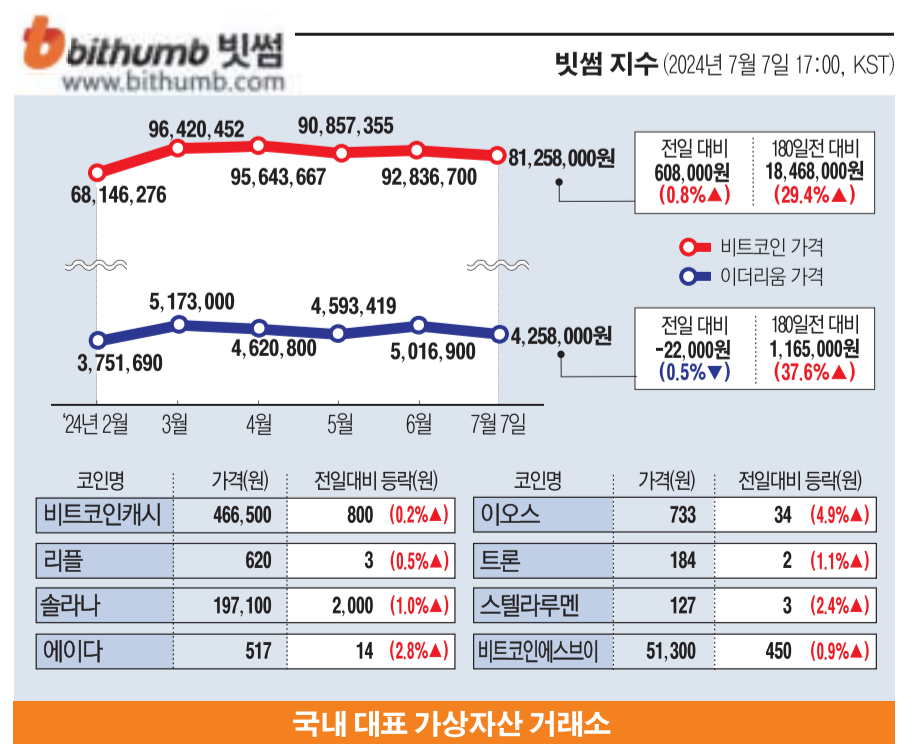
법조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해서 공정위도 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조항 여부를 30일 전 고지가 없으면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약관 개정 사항 공시를 할 때 30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약관에 유형에 대해 시정 권고하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빗썸, 고팍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도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약관 개정 공지가 이뤄진 곳은 비블록이 유일하다. 빗썸 관계자는 “조만간 변경된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K-제약업계, 'AI 플랫폼' 날개 달고 신약개발 가속

AI 바이오 기업과 협업

HLB파나진, 아론티어 'AD3' 치료제 개발 분야로 영역 확대
JW중외, 항암 혁신신약에 '랩터' 동국은 '토프오믹스'로 연구 확장

제약업계·AI 플랫폼 기업 주요 협력 사례

기업	협력 기업	플랫폼	적용분야	협약 시기
HLB파나진	아론티어	AD3	PNA 신약	2024년 7월
JW중외제약	온코크로스	랩터 AI	항암·재생의학	2024년 5월
동국제약	온코빅스	토프오믹스	항암제	2024년 2월

※ 출처: 각 사



신약에 목마른 제약업계가 인공지능(AI) 신약개발 플랫폼을 가진 바이오기업과 잇따라 협업하고 있다.

신약개발을 위해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과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AI는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빅데이터로 임상 성공률까지 높이는 혁신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화이자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AI를 활용해 유행지역 예측과 임상시험 분석을 수행, 개발 기간을 10.8개월로 단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LB파나진은 AI

신약개발 기업 아론티어에 4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다. HLB인베스트먼트도 10억 원으로 2.5%의 지분을 인수, HLB그룹이 아론티어 지분 12.5%를 확보하고 아론티어의 AI플랫폼 'AD3'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PNA(인공 DNA)를 이용한 분자진단 제품을 만들던 HLB파나진은 AD3을 적용해 치료제 개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 PNA는 DNA(디옥시리보핵산)나 RNA(리보핵산)와 유사하지만 구조가 더 안정적이고 결합력이 높다.

아론티어 플랫폼은 환자의 유전체나 임

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을 발굴하는 역량이 뛰어나고, mRNA 디자인이나 단백질 합성구조 설계 등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HLB파나진과 아론티어가 협력 발굴한 혁신신약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HLB바이오스텝이 비임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개발 중인 항암 및 재생 의학 분야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에 온코크로스의 AI기술을 적용한다.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하고 검증해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코크로스의 '랩터(RAPTOR) AI'

는 신약 후보물질이나 기존 개발 약물에 대한 최적의 적응증을 스크리닝하는 플랫폼이다. 다양한 약물과 질병 조합을 볼 수 있는 수백 종의 질병 코호트 데이터와 수만 개 화합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2022년 온코크로스와 랩터 AI기술을 1차 면역질환 적응증 탐색에 활용했다. 자체 AI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주얼리(JEWELRY)'와 '클로버(CLOVER)'로 세포 신호전달경로 윈트(Wnt)와 전사인자 단백질 스탯(STAT) 타겟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등 일찌감치 AI 신약개발에 주목했다.

동국제약은 올해 2월 온코빅스와 손잡았다. 온코빅스의 약물 도출 플랫폼 토프오믹스(TOPFOMICS)를 다양한 질환의 약물 설계에 적용해 연구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토프오믹스는 절편의 합성과 결합으로 인체 내 손상된 효소에 맞는 물질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자체 보유한 256만 개 화합물 가상절편 라이브러리에서 조각들을 결합해 더 큰 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만든 화합물을 최적화해 후보물질을 도출한다.

동국제약은 토프오믹스 플랫폼을 활용해 현재까지 알려진 효력 이외에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추가효능을 찾기로 했다. 항암제 신약 포트폴리오 확충이 목표다.

AI기반 신약개발 시장 규모는 성장세다. 시장조사기관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9억 달러(약 1조25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2028년까지 연평균 40.2%씩 성장해 2028년에는 49억 달러(약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해은 기자 euna@

한번 복용하면 '증상 뚝' ... 출시 55년 만에 '감기약 1등'

장수의약품을 찾아서 ①

동화약품 '판콜'

동화약품의 종합감기약 '판콜에스'가 지난해 감기약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했다. 1968년 출시 이후 줄곧 2위였던 판콜이 1위로 올라선 건 처음이다.

7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판콜에스는 약 1740만 개가 판매됐고 3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감기약 시장 전체 매출 1420억 원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판콜은 1968년 출시돼 50년 이상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다. 판콜이 출시되기 전에는 기침을 진정시키고 가래를 제거해주기 위한 감기약이 주를 이뤘고 여러 번 나눠 마시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초기 감기엔...' 메시지 각인시켜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라인업 사이 모델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동화약품은 1회 복용과 액상 형태로 빠르고 쉽게 섭취가 가능한 종합감기약 판콜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출시 첫해 소비자의 입소문을 타면서 34만 명의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50여 년의 역사 속에 지난해 갑자기 감기약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높은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있다.

판콜은 매년 재치 있는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했다. 매년 옥외 광고 캠페인을 통해 '초기 감기엔 콜-판콜'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각인시켰다.



2019년에는 17년 만에 TV 광고를 새롭게 론칭하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채널까지 판콜 캠페인을 확장했

다. 기존 소비자에 더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지난해부터는 가수 싸이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까지 새롭게 선보였다. 판콜 광고에서 싸이는 콘서트를 연상하게 하는 무대에서 '감기없는 코리아, 판콜이야'라는 키 메시지를 힘차게 외친다. 반복적인 카피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싸이 마케팅이 통하면서 줄곧 선점 제품에 밀려 2위 자리를 유지해왔던 판콜은 감기약 시장 연 매출 구도에서 앞장 서게 됐다.

'판콜'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성인용 종합감기약 '판콜에스'와 어린이 감기약 '판콜아이콜드 시럽',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콜에이' 등 총 3종이다. 판콜에스와 판콜에이 두 제품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기침, 인후통,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대부분의 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판콜아이콜드 시럽'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일회용 스틱 파우치 형태로 캡슐이나 알약 제형에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외출이나 여행 시 휴대가 간편하다.

동화약품은 자체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감기약 판콜류의 연간 매출액은 총 511억 원을 달성했다. 회사 측은 감기약 시장에서 지속해서 1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아토피 치료제' 유효성 확보 못한 강스템, R&D 동력 꺼지나

강스템바이오텍이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에 실패했다. 회사는 해당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업화는 물론 품목허가도 불투명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달성에 실패했다. 회사 측은 임상 1차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투약 전 대비 12주 경과 시점의 습진중증도평가(EASI)-50 달성률이 투약군 34.18%, 위약군 29.79%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ASI-50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습진 부위의 심각도가 약물 사용 전과 비교할 때 50%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 회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이어 재도전 임상 3상 실패
임상 없이 품목허가·기술이전 추진

관절염·크론병 치료제 등 개발 중
향후 자금조달 시기 더 빨라질 듯

로부터 퓨어시스템-에이디주의 임상 3상 승인받은 뒤 2019년 결과를 발표했다지만 1차 유효성 평가지표 EASI-50 평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재도전한 임상 3상에서도 실패를 봤다.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 중인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흑자 전환을 노렸지만, 5년 전과 같은 결과를 반복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기업설명회에서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연 매출 2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아토피 피부

염 환자 수는 연간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데 이 중 10%의 환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란 계산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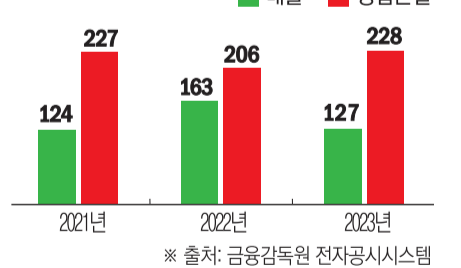
하지만 이번 실패로 연구개발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외에 류머티스관절염, 크론병, 판상형 건선, 골관절염 치료제 등을 개발 중이다. 모두 임상에 진입한 만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올해 1분기 기준 강스템바이오텍의 보유 현금금은 약 300억 원이다. 매년 연구개발비로 150억 원 안팎을 지출하는 만큼 당장 현금미 부족하지는 않지만,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임상 실패로 향후 자금 조달 시기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나중엔 강스템바이오텍 대표는 "자금적으로 문제없다. 유상증자 계획도 없고, 특히 일반 주주 대상으로 할 계획은 없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회사가 설계한 자금 조달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세 번째 임상 없이 12주 이후 장기추적조사 결과로 품목허가와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16주차~24주차까지 시험군의 EASI-50 달성률이 48.05%~58.06%로 12주차 위약군 대비 약 18%~30%가량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배요한 임상개발본부장은 "세 번째 임상에 대해 바로 답하기 어렵다. 우선순위는 국내 품목허가다. 임상 3상의 16주, 20주, 24주에서 EASI 반응률이 49~58%로 상승했다. 24주에서 EASI-75는 30.42%를 달성했는데, 트랄로키누맙(제품명 애드트랄자)이라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도 16주차 ESAI-75 달성률 30%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스템바이오텍 최근 3년 실적 (단위: 억원)



나 대표는 "1차 평가 지수를 달성하지 못해도 해외에서는 허가받은 사례가 있고, 퓨어시스템-에이디주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향후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허가와 기술이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시선은 회의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5년 전에도 1차 평가지수를 미충족했고,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이전을 추진했다. 품목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1차 평가지수가 부족하네 품목허가와 기술이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 식품 특화매장으로 대변신

가보니 이마트 죽전점

가전 전문점 줄이고 식품 늘려 상품 매대 간격 넓혀 동선 편리
축산매장 길이 일반 매장의 2배 자체브랜드 밀키트 80종 달해

“신선식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네요.”
“간편식도 테마별로 구분해 쇼핑하기 편해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마트 죽전점을 찾은 고객들은 저마다 호평 일색이었다. 이마트 죽전점은 1차 재단장(리뉴얼)을 마치고 이달부터 지하 1층을 정상 운영 중이다. 재단장 후 대형할인점 이마트와 가전 전문점 일렉트로마트가 들어섰다. 기존 지상 2층 전체를 차지하던 일렉트로마트를 지하 1층 매장 한쪽으로 옮긴 터라, 기존보다 가전 전문점은 줄었다. 과거 이마트 내 디지털가전부품 매출 전국 1위였던 죽전점으로선 과격 시도다. 완구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이마트 죽전점 계산대 전경. 2 피코크 간편식 코너.

전문 매장 ‘도이킹덤’도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가전·완구 매장을 줄인 대신 죽전점은 식품을 대폭 확대했다. 애초 죽전점 지하 1층에는 신선·가공식품 외에 주방·일상용품, 잡화 등이 있었는데 식품에 올인한 셈이다. 앞서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도 올해 이마트 주주총회에서 죽전점을 식품 특화매장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하 1층에 들어서자, 초입 베이커리의 고소한 빵 냄새가 고객을 맞았다. 맞은편엔 과일·채소매장이 넓게

펼쳐졌다. 상품 매대 간격을 넓혀 카트 동선을 크게 확보,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주부 김은정(50) 씨는 “전보다 한층 깔끔해진 느낌이고 동선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마트 죽전점은 간편식 종류를 대폭 늘렸다. 베이커리에서 이어지는 왼쪽 코너를 간편식 매대로 꾸몄다. 조각 과일, 식단관리, 디저트, 간편식사(그립앤고), 간편 요리, 피코크 등 테마별로 일목요연했다. 식단관리 코너에는 샐러드와 저칼로리 간편식을, 간편식사 코너엔 샌



드위치기가 가득했다. 특히 피코크 코너는 ‘밀키트 천국’ 같았다. 이마트 자체브랜드(PB) 밀키트가 주였는데, 약 80종에 달했다.

간편식 코너 오른쪽에는 정육 쇼케이스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항생제돈육, 미식돼지, 바비큐존, 호주산 소고기, 한우, 화식한우, 오리, 닭고기, 양념육 등 ‘고기 파티장’이 따로 없었다. 이곳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대략 50절음이였다. 대한민국 성인남성 평균 보폭이 0.76m인 것을 감안하면 약 38m다. 일반 이마트 점포의 축산

매장 길이가 17~21m인 것에 비해 2배 정도 길다. 박재호(31) 씨는 “캠핑용 고기를 사러 왔는데 돼지·소 등 단순 구분 대신 바비큐존으로 특색있게 구성해 구매하기 편리해, 생각했던 양보다 많이 샀다”고 했다.

정육 쇼케이스 맞은편엔 수산 코너가 있다. 원하는 어종과 부위를 골라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있는 ‘참치 정육점’이 이색적이다. 이마트는 작년 리뉴얼한 연수점에 이를 처음 선보였다.

이마트 죽전점은 최저가 상품에 대한 고객 안내도 강화했다. 최저가 상품 매대 바닥에 ‘슈퍼 프라이스(SUPER PRICE)’로 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올해 들어 매월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저가 수준에 판매하는 ‘가격파격’ 행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1차 재단장(지하 1층)을 마친 이마트 죽전점은 1층과 2층도 탈바꿈 중이다. 이곳에는 패션, 리빙, 엔터테인먼트, 식품(F&B) 테넨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마트 죽전점은 내달 2차 리뉴얼을 마무리 짓고 8월 31일 ‘도심형 쇼핑마켓’으로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용인=글·사진 유승호 기자 peter@

위스키 인기 ‘폭’... 주류업체, 테킬라·와인에 ‘눈독’

지난해 역대 최대 수입 기록을 세우며 상승장구했던 위스키의 인기가 올해 들어 한풀 꺾인 모양새다. 국내 주류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데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까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스키 인기가 다소 주춤해지자 주류업체들은 테킬라, 샴페인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7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위스키 수입액은 9766만 7000달러(한화 약 1349억 원)로, 전년 동기 1억1048만 달러(약 1526억 원)보다 1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량도 1만732톤(t)으로 전년 동월 1만4149톤보다 24.1% 줄었다. 위스키는 지난해 하이볼 등의 인기로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수입량은 3만586톤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위스키 수입량이 3만 톤을 넘는 것은 처음이었다.

위스키 수입액 1년새 11.6% 감소
다이지오코리아 테킬라 홍보 열중
신세계L&B도 다시 와인에 집중

업체는 위스키 수입이 다소 내림세인 것은 지난해 말부터 고물가 여파로 소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것도 주요인이다. 일례로 코로나19 가한창이던 2021~2022년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 트렌드 영향으로 와인이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끈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위스키가 주목을 받으며 신홍강자 자리를 내줘야만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위스키를 수입·유통하는 프리미엄 주류사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조니워커’, ‘몰트락’

위스키 등을 취급하는 다이지오코리아는 올해 테킬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 제품은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멕시코 프리미엄 테킬라 브랜드 ‘돈 홀리오’다. 다이지오는 5일 주최한 바텐딩 기술경연 ‘월드클래스코리아2024’ 파이널 경연에서도 돈 홀리오를 활용한 칵테일 과제를 내기도 했다.

위스키를 늘렸던 신세계L&B도 다시 와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스카치위스키, 싱글몰트 등 다양한 위스키를 수입했지만, 최근에는 미국 버번위스키로만 품목을 줄였다. 대신 미국 오리건 와인 ‘레조낭스’,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 ‘라이세스까바 브릿’ 등을 새롭게 출시했다. ‘발렌타인’, ‘시바스’, ‘로열 샬롯’ 등 위스키 브랜드를 보유한 페르노리카코리아도 올해에는 샴페인, 리큐르 등 위스키 외 품목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ij42@



돌잡이서 아령·마이크 선택한 ‘쌍둥이 판다’

에서 바오패밀리를 아껴준 팬 60명을 초청해 돌잡이를 열었다. 작년 7월 7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마오 사이에서 태어난 루이바오·후이바오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각각 180g, 140g에서 1년 만에 모두 30kg을 넘어서며 건강하게 성장했다. 돌잡이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로는 대나무로 만든 붓(혜), 판사봉(명예), 공(재능), 마이크(인기), 아령(건강) 등 5가지가 마련됐다. 루이바오는 잔잔하고 조용한 성격을 지닌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아령을 택했다. 반면 장난기 많고 거침 없는 후이바오는 금세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에버랜드는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의 첫 생일인 7일 판다월드에서 바오패밀리를 아껴준 팬 60명을 초청해 돌잡이를 열었다. 작년 7월 7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마오 사이에서 태어난 루이바오·후이바오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각각 180g, 140g에서 1년 만에 모두 30kg을 넘어서며 건강하게 성장했다. 돌잡이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로는 대나무로 만든 붓(혜), 판사봉(명예), 공(재능), 마이크(인기), 아령(건강) 등 5가지가 마련됐다. 루이바오는 잔잔하고 조용한 성격을 지닌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아령을 택했다. 반면 장난기 많고 거침 없는 후이바오는 금세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롯데슈퍼 “무거운 수박 1통도 무료배송”

전국 137개 지점 하절기 무료 배달

롯데슈퍼는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잠원점을 포함한 전국 137개 지점에서 ‘하절기 무료 배달’에 나선다. 롯데슈퍼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수박·생수 묶음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데, 슈퍼주 고객층인 5060세대들이 직접 들고 가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무료배달을 시행하게 됐다.

행사 기간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 배달 최소 기준은 △수박 1통 △쌀 1포(4kg 이상) △화장지 1묶음(24롤 이상) △세탁세제류 1개(3kg 이상) 등이다. 생수(300mL*20입, 500mL*20입, 2L*6입)의 경우 최대 4묶음까지 배달 가능하며 용량별 혼합 구매할 수 있다. 롯데슈퍼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하절기 무료 배달 시행 점포의 매출과 고객 수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무료 배달 운영 점포 수를 전년 대비 약 10% 늘린 140여개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롯데슈퍼는 원거리 거주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자 춘천점, 북대점 등 일부 점포에 배달 가능 권역을 1km 이상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확대 대상 점포들은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있어 점포 반경 500m 외에서 오는 고객 비율이 도심보다 높은 편이다. 롯데슈퍼는 원거리 장보기의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할 경우 방문객 수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라 기대. 박준형 롯데마트·슈퍼 점포지원팀 담당자는 “방문객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배송권역 확대 및 중량 상품 무료 배달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수박과 쌀 등 무거운 상품을 1개만 구매하더라도 무료배송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여름철에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패션 해외 직구 1년새 43% ↑ ... C커머스 ‘군침’

초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국내 패션 시장에 군침을 삼키며 파이를 키우는 모양새다. 중국산 제품의 일명 짝퉁(가품)·유해물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산 패션 브랜드사를 유지하는 한편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하는 ‘친한(親韓)’ 마케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쌍방울의 속옷 브랜드 ‘트라이(TRY)’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한국 브랜드 전문관 ‘K베뉴(K-Venue)’에 공식 입점했다. K베뉴에 국내 패션 브랜드사가 공식 입점한 건 처음이다. 그동안 K베뉴에 한국 식품 브랜드 유치에 힘써온 알리는 하반기부터 패션·뷰티 상품군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리는 최근 패션 상품 기획자(MD) 인력도 대거 보강한 것으로 알

알리 ‘K베뉴’에 트라이 공식 입점
쉬인, 패션 메카 성수동 단독 팝업

려졌다.

2022년 12월 한국 법인을 설립한 중국 패션 플랫폼 ‘쉬인’도 4월 말부터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특히 국내 패션 메카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첫 단독 팝업스토어를 8일부터 14일까지 연다. 쉬인은 서브 브랜드인 ‘데이지(Dazy)’의 첫 글로벌 앰배서더로 한국 유명 배우 김유정을 발탁했다. 한국 소비자들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게다가 쉬인은 최근 국내 SPA 브랜드 등과 접촉하며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쉬인은 온라

인 플랫폼으로, 주문형 생산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C커머스가 이달 아한국 패션 시장 공략에 나선 이유는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의류·패션 관련 상품의 작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해외 직구)은 전년보다 43.5% 늘었다. 늘어나는 직구 수요에 힘입어, 한국 직접 진출을 택한 C커머스로선 상품 문제와 안전성, 품질 논란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일례로 알리에 입점한 유명 패션 브랜드는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가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되는 쉬인의 경우, 가품 및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도 크다.

문현호 기자 m2h@

“투자고객 입맛따라 신메뉴 척척... 자산관리 맛집 비결”

★ ‘은행의 별’을 말한다

①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20년 간 주요 프라이빗뱅크(PB) 센터에서 근무한 ‘PB 전문가’다. 2002년 하나은행 목동지점 PB를 시작으로 압구정지점 골드클럽 골드(Gold) PB, PB 사업지원부 셀장, 소비자리스크관리섹션 유닛리더, 자산관리그룹장 겸 WM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그룹 자산관리본부장과 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겸 투자상품본부장에 선임되면서 그룹 부사장과 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20년 동안 주요 센터 누빈 ‘PB 전문가’
1년 만에 부사장·부행장 ‘초고속 승진’
취임 1년 반만에 VIP 손님 평균 11% ↑

하나은행이 ‘자산관리 명가’로 자리매김한 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1995년 맥킨지 PB 컨설팅을 통해 현대적 개념의 PB 비즈니스모델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금융권 ‘최초’ 서비스들을 출시하며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김 그룹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하나은행이 메뉴가 많은 집이면서 맛도 있는 ‘자산관리 맛집’으로 불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메뉴를 항상 개발 중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도전적인 시도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도 했다.

김 그룹장은 “플래그십 스토어, 비대면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유언대용 신탁 등 전략적인 시도를 가장 먼저 했지만, 다른 은행들이 따라 하면 차별점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만의 색깔이 희석되지 않도록 늘 새로운 것을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정형화된 PB 조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화된 PB도 양성한다. 그는 “누구든 PB는 ‘자산관리 제너럴리스트’라고 정의한다. 이런 PB가 200명에서 300명 규모”라면서 “투자은행(IB), 기업금융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화된 직원도 PB로 데려와 추가 양성하고 있다. 이색적인 경력의 PB를 많이 기용해 손님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의 아이디어로 경희의료원, 인하대학교, 고려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지점, 광운대학교 등 5곳에 PB를 배치하기도 했다. 대학교, 대학병원 등에 위치한 점포는 점포특성상 일반적으로 PB가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해 볼 만한 시도라고 판단했다. 김 그룹장은 “지금 당장은 자산 규모가 크지 않지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1971년	출생
1996년 1월	보람은행 역삼동지점 행원입사
1998년 12월	하나은행 일원동지점
2011년 1월	하나은행 압구정지점골드클럽 Gold PB
2016년 7월	하나은행 홍콩지점 Gold PB
2020년 6월	하나은행 PB사업지원부 셀장
2021년 1월	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섹션 유닛리더
2022년 1월	하나은행 ClubIPB센터지점 지점장
2023년 1월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겸 WM본부장 (상무)
2023년 1월	하나금융지주 그룹자산관리부문 (상무)
2024년 1월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겸 투자상품본부장 (부행장)
	하나금융지주 자산관리본부장 (부사장)

김영훈 자산관리그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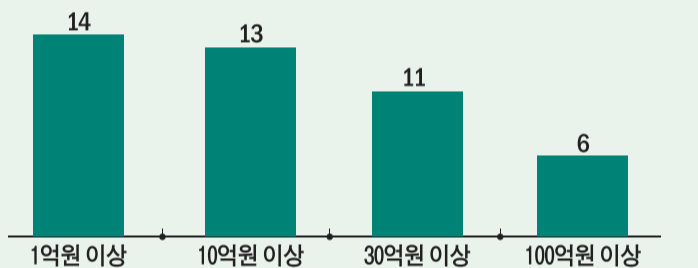
취임 후 VIP 증가율 (단위 : %)

※ 2024년 6월 말 기준

(2022년 12월 말 대비)

※ 2023년 1월 취임

※출처 : 하나은행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이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만, 미래의 손님을 찾자는 의미다. 다양한 이벤트와 관리로 하나은행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통적인 PB 모델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 처음에는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다. 현재 반년 정도 지났는데 맨땅에서 시작한 PB들이 정말 대견하게 잘 하고 있다”고 흐뭇해했다.

최근에는 비재무적인 영역을 차별화하고 있다. 내재화와 협업을 통해 고객이 선택할 만한 ‘세트 메뉴’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보통 일반 대형 신탁, 패밀리 오피스 등은 본점 부서에서 영업점의 업무수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본점의 전문 조직이 전국 어느곳이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고 있다”면서 “손님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솔루션에 한계가 없도록 확장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법인, 로펌, 세무법인 등 전문가들과 제휴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자산규모 1억~10억원 사이 초기 자산가나 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디지털로 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초개인화 AI 자산관리 솔루션 ‘아이웰스’를 지난해 4월 출시했다. 김 그룹장은 이들의 65%가 은행에 오지 않고, 자기 주도적 자산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밝혔다.

아이웰스는 출시 14개월 만에 자산관리 규모 7362억 원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정기 구독 수는 12만1858명으로 집계됐다. 투자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어 468개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수익률 또한 벤치마크보다 항상 높다.

은행권 ‘최초’ 대학·병원에 PB 배치
AI 자산관리 자산규모 7300억 돌파
법인·로펌 제휴 비재무 영역도 차별화

그는 “편견을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추천받는 포트폴리오와는 또 다르다. 사람에게 제안 받는 경우 선호에 따라 각자 다른 상품을 추천한다”며 “이럴 때 AI가 제안의 표준화의 역할을 한다. 편 의성 제고와 제안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고 짚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 덕에 김 그룹장이 취임한 지 1년 반 만에 VIP 손님이 평균 11% 늘었다. 자산 규모 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14% △10억 원 이상 13% △30억 원 이상 11% △100억 원 이상 6% 증가했다.

김 그룹장에게 홍콩에서의 4년은 전환점이다. 그는 2016년 홍콩지점에서 골드 PB로 근무했다. 당시 체력적으로도, 역량 면에서도 피로감이 있었을 때였다. 그는 “외부에서 우리나라 PB에 대해 생 각해 볼 기회였다”면서 “홍콩 PB의 경우 우리보다 고객에 대한 질문이 더 복잡하다. 고객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이 잘 돼 있다. 훨씬 많은 종류의 상품을 팔 수 있어 파이 프라인도 다양하다”고 평가했다.

해외의 유연성을 국내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때 하게 됐다. 김 그룹장은 “외국의 경우 하우스가 필요 없으면 없애다. 전문 계약직 형태로 PB를 채용하다 보니 여러 종류의 PB들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다”면서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에 신중하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대신에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지원은 우리나라가 훨씬 적극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고객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것’을 조언했다. PB 본인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 성향에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그룹장도 무조건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였던 때가 있었다. 그는 “PB 초기에는 손님이 얼마 벌 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퍼포먼스가 곧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고 시장 중립적인 제안과 포트폴리오가 나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달 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손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선부른 판단에서 손님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위험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의 성격과 목적, 이후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바라고 요구하는지 수없이 물어봐야 한다. 개인의 기호 등 주변부의 정보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총당금 부담 덜어낸 증권사 빅5... 상반기 영업익 3조 전망

대형 증권회사 5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실적을 압박했던 총당금 부담이 줄고 수수료 이익이 개선되면서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떨쳐내지 못한 중소형사들은 부진한 성적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각 사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 중 실적 컨센서스(전망치)가 제시된 상위 5개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조81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6000억 원을 웃돌면서 40%

미래에셋·한투·NH 등 수수료 이익 등 개선
중소형사, PF 리스크에 부진한 성적 예고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다음 키움증권이 5841억 원으로 2.5%, 삼성증권이 5628억 원으로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NH투자증권은 8.7% 늘어난 5129억 원, 미래에셋증권은 14.4% 증가한 5014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장 예상보다 좋았던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 부동산 PF 등 총당금 부담을 던 게 컸다.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상대적으로 컸던 한 국투자증권은 사전에 700억 원 규모의 총당금을

미리 쌓아뒀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등으로 실제 부담은 이것보다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상반기 해외주식 거래가 늘면서 관련 수수료 수익도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 금액은 912억346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KB증권에 따르면 5개사 합산 브로커리지 영업이익은 1조14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 금리도 하락하면서 채권 평가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성이 개선된다.

대형사 중심의 회복이 이뤄지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실적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극과 극

의 상황이 펼쳐질 예정이다. 중소형사는 수익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벌어들였는데 부동산 PF 달이 줄고 리스크 부담이 커진 환경에서 별다른 수익처를 찾지 못해서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총당금 부담이 커지면서 지주사까지 타격을 미칠 예정이다. 김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DGB금융지주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5% 감소한 305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기 경정적 대응비용이 1200억 원 내외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국내 부동산PF 개별평가에 따른 증권 자회사 추가 총당금 2000억 원 전액 적립 가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전입이 107%로 큰 폭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론 등 고위험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가계대출 급증에... 당국 '전세대출 DSR' 카드 만지작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3개월 전부터 꿈틀대던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단 나흘만에 2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들쭉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가계대출 확대 우려에 '경고장'을 잇달아 날리고 있지만 증가세를 잡기에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에도 확대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총 710조7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708조5723억 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 원이나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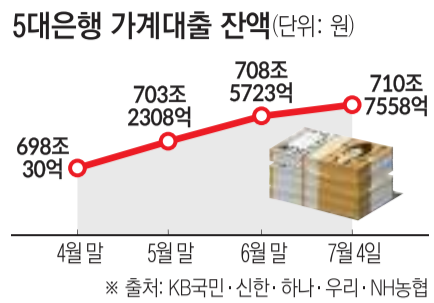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4월 말 기준 5조1000억 원 늘었던 가계대출은 5월 말에는 5조2278억 원으로 증가세가 확대됐고 6월 말에는 5조3415억 원 급증했다. 이는 2021년 7월(+6조2000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552조1526억 원에서 552조9913억 원으로 8387억 원 불어났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감소했던 신용대출도 이달(102조7781억 원→103조8660억 원)에는 나흘만에 1조879억 원 증가했다.

이같은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은 은행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며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 드러난 지적 사항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에도 나섰다.

하지만 이미 흐름을 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

5대 은행 가계대출 나흘새 2.2조 ↑ 신용대출도 1조 넘게 늘며 다시 꿈틀 당국 대출관리 주문에도 빗잔치 여전

DSR 전세대출 확대 가능성

금감원, 소대출 대상 DSR 산정 주문 전문가 "DSR 확대시 서민 피해 우려 정부, 피해 최소화 위해 최선 다해야"

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연초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규제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금감원과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지에 대한 문제일 뿐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은 금융당국 내에서는 확정된 내용"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과 관련한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른 결과치를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이는 전세대출 DSR 도입 등 중·장기적인 정책적 판단 시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전세대출 DSR 적용으로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도 이를 고려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가운대 이상자향분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DSR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측면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주거비용 인상을 초래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보험사 70%, 지급여력비율 하락 일부 중소 보험사는 권고치 미달

"향후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 지급여력 더 나빠질 수도" 우려



금융당국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금융사들에게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건전성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보험사 10곳 중 7곳 이상은 전년 말 대비 지급여력(K-ICS) 비율이 하락한 데다 일부 중소 보험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밑도는 실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 중 17곳의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도 19곳 중 13곳이 K-ICS 비율 하락을 겪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하면서 이를 적용하다 보니 가용자본이 감소해 K-ICS 비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K-ICS 비율은 소비자가 보험을 한꺼번에 해약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제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자본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했던 구 지급여력제도인 RBC와 달리 지난해부터 도입된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한다. 부채가 금리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게 된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보험사가 신청한다면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주식·금리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중소보험사의 경우 이를 적용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인 150%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KDB생명(117.5%) 대비 11.6%포인트(p) 상승했지만 129.1%에 그쳤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말에는 153.0%로 권고치를 웃돌았지만, 올해 1분기 말 130.5%로 하락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MG손해보험은 52.4%에 불과했다. 전년 말(76.9%)에 비해 24.5% 떨어지며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인 100%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그간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부실, 금리 변동성 등 아직 금융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했다.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당시에도 회의 참석자들이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 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리인하 시점을 예견하기 힘들게 다 K-ICS 도입 초반이라 계리적 가변경 가능성도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의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건업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의 K-ICS 비율 하락은 지난해 금감원의 할인을 현실화 방안에 따라 예고됐다"면서도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우리銀 '라이징 리더 300' 3기 42개 기업 최종 선정

업체당 최대 300억 지원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 300(Rising Leaders 300)' 3기 4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라이징 리더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산업생태계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맡는 중견 및 중견 후보기업에 대해 여신한도 4조 원, 금융비용 600억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이번 3기는 지난 4월 중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우리은행의 사전한도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개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의 추천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42개사는 우리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0억 원, 초년도 기준 최대 1.0%의 금리 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출입금용 솔루션 제공, △ESG 대응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기의 경우 최종 선정 대상은 1기 38개사, 2기 34개사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며 "자금수요 니즈를 바탕으로 한 중견 및 중견 후보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반영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견 및 중견 후보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징 리더 300 4기 선정 공고는 하반기 8월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moon@



NH농협은행 '여성책임자 RM' CEO 특강 NH농협은행은 'NH 여성책임자 RM(기업금융 전문역) 레벨업 CEO 특강'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5일 열린 이번 특강은 기업금융 여성책임자 RM 역량 강화를 위해 중간관리자급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석용(앞줄 가운데) NH농협은행 은행장과 RM 여성책임자들이 강의 종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금융연 "중신용자 신용대출 증가세... 위험관리 강화해야"

국내 금융권에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의 개선과 함께 대출 부실 가능성도 함께 늘어난 만큼 위험 관리 능력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최근 중신용자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신용자가 전체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분기 17.6%에서 올해 1분기 26.2%로 상승했다. 중신용자는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50% 차주를 뜻한다.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신용자의 75%가 2000만 원 이하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신용자 평균 차입금리는 9.5%였으며, 전체 중신용자의 4분의 3이 11.9% 이하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신용자가 돈을 빌린 금융회사 분포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은행(41.3%)과 신용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업권(45.0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중신용자 전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6.6%에 불

과하나 중신용자 4명 중 1명은 DSR이 37.3%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보고서는 중신용자 금융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면 이들 대출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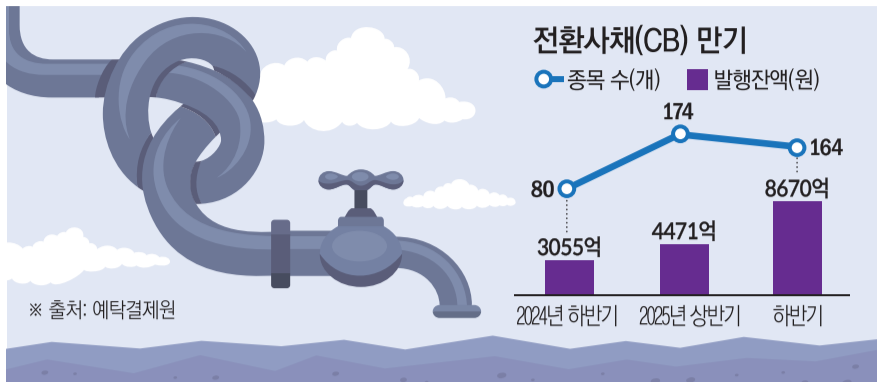
임 연구위원은 "중신용자의 경우 차입 규모가 상환여력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도 새로운 중신용자 발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신용자 대출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 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가 미달 코스닥 기업 속출... 하반기 'CB 풋옵션' 경고등

올해 만기도래 CB 3055억

전환사채 발행 후 부진 장기화 상황 압박에 만기 연장 줄이어 주가상승 여력 없을 땐 풋옵션 발행한도 규정 없어 악용 우려



사채로서 확정 이자가 지급되고, 주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유상증자, 회사채 등과 같이 기업들의 자금조달책 중 하나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과 더불어 주식으로 전환될 시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로서는 발행 시 기업 부채가 늘어나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되더라도 지분이 희석되고, 오버행 위험이 커지면서 증시에서는 통상 악재로

인식된다.

CB 만기가 도달한 경우 발행 기업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일에 맞춰 잔여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미 다수 기업이 만기가 예정된 CB에 대한 만기 연장을 실행한 상황이다. THE E&M은 5월 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8월 예정이었던 CB 만기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CB의 추가 발행에 만기가 임박한 전환사채의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 7월 2회차

CB 만기를 앞둔 드림시큐리티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4월 100억 원 규모 3차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통상 CB는 발행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향후 발행사의 주가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투자자는 만기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가 대비 주가가 하락한 데다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들은 만기 연장 혹은 전환권 행사를 거치지 않고 만기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CB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을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으나 현행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밀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가 부진으로 추가적인 외부자금조달도 어렵다. 수젠텍은 2021년 7월 2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최저 조정가액을 1만6122원으로 설정했으나 그해 10월 리픽싱 한도

까지 전환가액을 조정했다. 수젠텍 주가는 5일 기준 4965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자금 시장 유동성 악화 영향으로 당시 CB 발행이 늘어나면서 내년 만기를 앞둔 CB 규모도 크다. 내년 만기를 앞둔 전환사채 발행잔액은 총 1조3141억 원이다. 상반기에만 4471억 원의 CB 만기가 예정되었다.

한편, 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CB를 발행해 해당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가 커지는 한편, 불공정거래 악용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CB 발행한도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회사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한 CB 발행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3차 배정 전환사채 발행한도나 전환사채 발행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규 기자 pmk8989@

〈각 사 역대 최고가 46만5000원·17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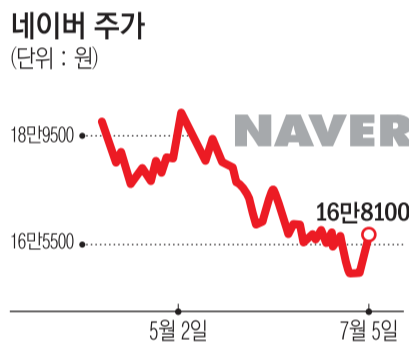
시총 15兆 증발 네카오... 46층·17층 탈출 까마득

코스피 지수 연일 최고점 찍는데 네이버·카카오 외인 보유율 하락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중 최고점을 경신, 국내 주식시장에 온기가 살아나며 '국민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도 모처럼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증발한 네카오 시가총액만 약 15조 원에 달해 그간의 하락분을 메우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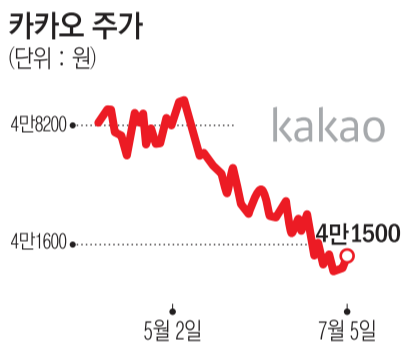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5.19% 오른 16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2.98% 상승한 4만 150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주가 하락분을 채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들어 각각 25.0%, 23.6% 급락했다. 시총도 크게 후퇴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은 총합 45조 7017억 원으로, 지난해 말(60조 5293억 원)에 비해 14조 8276억 원 감소했다.

증권가는 네이버, 카카오 주가 하락은 기대치가 점차 낮아지는 올해 2분



기 실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395억 원이다. 지난달 컨센서스(4472억 원)보다 1.72% 하향됐다. 카카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지난달 1485억 원에서 1447억 원으로 2.55% 낮아졌다. 광고 입찰 둔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시장 경쟁 격화 등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성을 둔 우려가 커지며 예상 실적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네이버는 하반기부터 내림세를 끊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웹툰엔터테인먼트 상장 자금을 지적재산(IP)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M&A) 등에 활용하면 기업 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경쟁력 입증, 중국 e-커머스 침투 방어 등이 가시화하는 시점에 순차적 멀티플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카카오 역시 하반기 주가 개선 여지는 있지만, 이를 위한 자회사 실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미디어 사업 부진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 신입 최고경영자(CEO)와 회사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성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교환사채〉

자사주 소각하렐더니 'EB발행' 기업 '무늬만 밸류업' 꿈수 증가

"자사주 공시규제 회피 목적" 지적

자사주를 활용한 기업들의 교환사채(EB)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사주 공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이를 피해 EB 발행을 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재무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1328억 원 규모의 사모 EB 발행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EB는 발행 기업이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통상 교환 대상은 발행 기업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이나 발행사 자사주가 많다. 호텔신라의 이번 EB는 표면 및 만기이자율이 모두 0%로, 저금리로 자금 조달한다는 점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키웠다.

앞서 유니드도 지난달 말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자사주 12만 8671주를 교환 대상으로 154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했다. 표면·만기 이자율은 호텔신라와 마찬가지로 0%다. 이 밖에도 에프앤에스테코, 알서포트, AP시스템, 디아이, 선익시스템 등이 지난달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을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표면·만기 이자가

모두 없거나, 만기 이지만 있어 금융비용 절감 면에서 긍정적이란 평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3분기 중 시행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회피하기 위한 '꿈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처분 목적과 주식 가치 희석 영향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보다 자사주를 EB로 전환해 기업 이익에 활용한다면 이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개정안 시행 전 자사주를 EB 발행에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향후 EB로 전환된 자사주들이 시장에 풀리면 기업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EB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교환한 자사주를 매도하면 시장에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이 발행한 EB의 표면 이자가 전부 0%인 점은 주가 하락 가능성을 더욱 키운다. 이 경우 EB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려면 EB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이를 매도해야만 해서다. '제로 이자'는 당장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 데서는 이득이지만, 향후 수익을 위한 차익실현 가능성이 커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손민지 기자 handmin@

물 만난 코스피... "지금부터 서머럴리"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가 힘을 받기 시작하는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강세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5일 2862.23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860대에 오른 것은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여만이다.

코스피 지수의 기준시점인 1980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분석한 결과 7월 한 달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 총 44개년 중 7월 한 달간 상승 마감한 해는 66%(29개년)에 달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991년에는 7월 한 달에만 606.27에서 717.03으로 18.46% 올

랐지만, 2000년에는 821.22에서 705.97로 14%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코스피는 7월 들어 상승세를 보인 해가 더 많았다. 최근 10년간 코스피가 7월에 하락 마감한 해는 4개년(2015년·2018년·2019년·2021년) 밖에 되지 않았다. 2020년(6.69%)과 2022년(5.10%)에는 5% 넘게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7월 중 5% 넘게 상승한 것은 2009년(12.03%) 이후 약 10년 만이다.

대신증권은 연초 이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1.6% 상향 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과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에 환율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연초 이후 환율 효과는 5% 이상 상향 조정됐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으로 장을 마감한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7월에도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기록 중"이라며 "대외 변수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한국 수출 호조, 삼성전자 주가 레벌업, 밸류업 기대 재유입 등 내부 동력이 가세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희민 기자 hihello@

천장 뚫은 삼성... 증권가 "12만전자 콜!"

'깜짝 실적'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일 8만 710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10조 4000억 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 영업이익의 치로 실적 서프라이즈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직후 NH투자증권은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했다. BNK(9만 3000원→10만 2000원)와 하나

증권(10만 6000원→11만 7000원)도 적정 주가를 높였다. 이달 들어 대신증권(10만 원→11만 원)도 목표가를 높인 바 있다. 이 밖에 KB증권(12만 원), IBK투자증권(11만 원), 한국투자증권(12만 원), 미래에셋증권(11만 원) 등은 목표가를 유지했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중에는 엔비디아형 공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사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BM 공급업체를 늘리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분당 선도지구 '상가동의율' 제외...성남시 '기준 유지' 가닥

(1기 신도시 재건축)

'주민동의율만 반영' 선정기준 일부 "특정단지 밀어주기" 반발

시 "불이익 보는 단지 없을 것... 재공고하면 혼란만" 고수 방침

성남시가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현재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을 유지할 때 적어도 불이익을 보는 단지는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보완 방안을 검토했으나, 처음 발표대로 '주민 동의율' 평가 항목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수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 선도지구 평가 상황에 밝은 한편, 계약자는 "잠정적인 결론은 앞서 정한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고,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미 선도지구 선정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룰' (Rule)을 바꾸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람을 발표하고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주민 동의율에 평가점수의 60%(총 100점 중 60점)에 해당하는 비중을 둔 것은 기존 국토교통부 표준안과 같았다. 하지만 성남시는 주민 동의율에서 단지 내 상가 동의율은 배제하기로 했다. 상가 동의율은 신청 기준(20% 동의)에만 됐다.

해당 관계자는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부 단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남시가 공모지침을 흔들지 않으면서, 상가 동의율 제외 방안"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대안

선도지구 '주민 동의율' 평가 기준 비교

배점 및 만점 기준	국토부	분당	일산·평촌·신분	중동
		상가 포함	95% 이상 60점 만점 공동주택 단지 한정 (상가 제외)	상가 포함

※ 출처: 국토교통부, 성남시

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시장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주민들에게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가 선정기준을 공개한 이후 일각에서는 '특정 단지 밀어주기'라는 불만 섞인 해석이 나왔다.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은 상가 동의율이 빠진 주민 동의율 평가로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향후 상가와외의 갈등이 불거져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당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예를 들면 양지마을과 같은 단지 내 상가가

많은 곳들은 이번 기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기준 발표 전 미리 상가들을 만나 설득한 단지들이나, (단지 내 상가가 많은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 예상했던 단지들은 기운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가기준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됐어도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적용받아 상가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해서는. 성남시 역시 이 점을 강조하

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안에서도 분재연과 다른 의견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분당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5개 신도시에서 동시에 개시됐는데, 성남시만 선정 기준을 재공고하면 제2, 제3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5개 신도시 모두 동일한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은 선도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라며 "상가까지 포함해 동의율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속도가 중요한 선도지구 선정에서 상가 동의의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Һ지은 기자 hje@

전세권설정·강제경매신청 지난달부터 감소세

전세사기 피해 우려, 한숨 돌리나

3월 이후 확대일로를 걷던 전세사기 관련 지표들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인 전셋값 상승세와 함께 시장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공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기준 전세권설정 등기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3127건을 기록했다. 5월 3498건과 비교하면 10.6%(371건) 줄어든 규모다.

수도권에선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100건가량 줄었다. 서울 신청 건수는 올해 5월까지 계속 600건 이상을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54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 621건 기록 후 4월 647건과 5월 665건으로 두 달 연속 늘다가 지난달 17.9%(119건) 급감해 진정세를 보였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달 707건으로 집계돼 5월 805건 대비 12.2%(98건) 감소했다. 인천의 6월

전셋값 상승...역전세 우려 줄어

5월 서울 빌라 전셋값 0.03% ↑

보증사고 피해사례도 15% 감소

신청 건수는 136건으로 5월 156건보다 13%(20건) 줄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신고 비용도 수십만 원 규모로 비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신청한다.

아울러 전국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건수 역시 4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전국에서 지난달 기준 2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3469건과 비교하면 28.9%(1004건) 급감한 수준이다.

이런 전세사기 관련 지표의 하락 전환은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역전세 우려 해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5월 빌라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5월 서울 빌라 전셋값은 0.03% 올랐다. 5월 서울 빌라 전셋값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사례도 5월을 기준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5월 전국 전세 보증사고는 6343건으로, 전달(7453건) 대비 14.9%(111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셋값 많이 올랐고, 서울 빌라의 경우 최근 전셋값이 소폭이지만 상승 중이며 매맷값도 조금 회복하면서 역전세 발생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며 "다만, 지방은 서울과 비교하면 전셋값 회복이 느린 만큼 전세시장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

신반포 16차...공사비 2469억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6차 재건축 사업(사진 투시도)을 수주하며 강남권 한강변 단지에 깃발을 꽂았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올리며 마수걸이 수주에도 성공했다.

7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신반포16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신반포16차 재건축 사업은 기존 지상 11층, 396가구를 최고 35층, 2개 동, 468가구 규모로 새롭게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3.3㎡당 944만 원으로, 총 2469억 원 규모다.

단지는 강남권에서도 한강변에 위치한 노르자위 입지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



선이 지나가는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가깝다. 올해 5월 전용면적 57㎡ 타입이 17억6000만 원에 손바뀜되는 등 시세도 우상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신반포 16차를 영구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시공할 계획이다. 단지명으로는 한강 조망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신반포 씨뽀 리피움'을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특화 설계 적용, 스카이라이프 시공 등을 통해 상품성을 극대화 한 랜드마크 단지로 시공할 예정이다.

한진리 기자 truth@·사진제공 대우건설

화성 연구기지·해저 아파트·이동형 야구장... AI로 구현한 현대건설의 미래



현대건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미래 뉴스' 캠페인 이미지. 화성 정주영 연구기지(왼쪽)와 부유식 이동형 야구 스타디움.



'미래 뉴스' 캠페인 이미지. 화성 정주영 연구기지 사진제공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창립 77주년을 기념해 진행하는 '헤리티지 캠페인' 후속영상을 지난 5일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현대건설 창립 77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헤리티지 캠페인의 후속으로, 지속성과 도전에 응원하는 고객들의 댓글 이벤트인 '현대건설 미래뉴스'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현대건설은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응모된 총 1543개의 댓글 가운데 창의력이 돋보이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방식부터 새롭게 접근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AI 이미지는 총 10편으로 △화성 정주영 연구기지 △부

유식 이동형 야구 스타디움 △주거 복합 우주정거장 △지구-화성 하이퍼루프 △공중 테마파크 △해저 아파트 △스마트 에코시티 △심해 엘리베이터 등 고객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혁신을 두려워 않는 현대건설의 기업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헤리티지 캠페인을 통해 창업주의 이념을 다시 조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까지 이어갈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건설산업이 바뀌길 미래 풍경과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금주의 분양캘린더

7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610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6103가구(일반분양 283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당첨자를 가리는 단지는 8곳이다. 경기

고양시 '고양장항카이브유보라(M1)', 경기 성남시 '산성역헤리스톤', 부산 동구 '블랑씨밋74', 강원 홍천군 '대상웰라움홍천'은 9일 발표한다. 10일에는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경기 과천시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S2)',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A8)'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 진행 단지는 6곳이다. 1일에는 경

기 고양시 'e편한세상시티원당', 경기 군포시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1BL)', 강원 홍천군 '홍천에듀포레휴티스', 전남 화순군 '힐스테이트화순2차'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모텔하우스를 여는 단지는 2곳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경기 화성시 비봉면 '킹덤시티' 등이 오픈 예정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7/8 (월)	접수	울산	중구	다연동	울산다연2A5(국민임대) (~7/10)	7/9 (화)	접수	광주	서구	치평동	쌍용더플래티넘네이처 1순위					
					행정중심복합도시63UR1(통합공공임대) (~7/11)						광주상무푸스타터스위트 1순위					
					행정중심복합도시63UR2(통합공공임대) (~7/11)						울산진하한양립스그랑블루 1순위					
7/9 (화)	접수	경기	성남시	금포동	판교테크노밸리중흥S클래스(A3) 1순위	7/10(수)	접수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2BL(행복주택) (~7/12)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파밀리에II 1순위						7/12 (금)	오픈	경기	화성시	비봉면	킹덤시티
					경기 파주시 동패동 GTX운정역이지더원(A44) 1순위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대방엘리움디스그니체(C18) 1순위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대방엘리움디스그니체(C18) 1순위											
부산	사상구	영곡동	더샵리온트 1순위	(주1) *♣=오피스텔, (주2) 9월 1순위 청약접수 단지는 10월 2순위 접수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R114												

운전 과신했나... “베테랑이 사고 많이, 더 크게 낸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면허를 취득한 지 15년이 넘는 ‘베테랑’이 초보 운전자보다 사고를 더 많이, 더 크게 낸다는 조사가 나왔다. 초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또 고령 운전자의 사고빈도와 심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202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0만7503건이었고, 이중 면허를 딴지 15년이 넘은 운전자가 낸 사고는 12만5718건으로 무려 6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사고 60% 차지... 초보는 2.5% 지나친 자신감에 부주의·태만↑ 고령 운전자, 대형사고 더 많아 “운행 횟수 적음에도 사고 빈번 관리제도 개선 논의 시급한 상황”

사고 사망자 수의 60.9%에 달했다. 경미한 사고보다 인명피해를 낸 중대 사고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반면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5228건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사고비율은 면허 취득 5년 이상 10년 미만(2만3993건, 11.6%), 5년 미만

(2만2901건, 11%), 10년 이상 15년 미만(2만527건, 9.9%) 순으로 집계됐다.

경험이 적은 초보 운전자의 경우 운전은 미숙하더라도 조심 운전을 하는 반면, 운전이 익숙한 베테랑 운전자의 경우 운전 실력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과 이에 따른 부주의와 태만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이들 이 낸 사고의 중상자 비율도 높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338건, 사고 건

수는 11만8287건으로 사고율은 4.57%였다.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828만7065건, 사고 건수 73만9902건)였다. 65세 이상의 사고율이 13% 더 높은 것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피해자 수도 더 많았고, 사고 심도를 나타내는 사고 피해자의 중상 비율 역시 더 높았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으로, 65세 미만(1.96명)보다 많았다. 또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145만1078명) 중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은 7.67%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피해자(31만532명) 중 중상자 비율은

8.72%였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빈도와 심도가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 역시 고령 운전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손해율은 80.2%로, 65세 미만 운전자(76.3%)에 비해 4%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생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는 운행 빈도 자체가 40~50대보다 낮은데도 사고 빈도나 사고 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꽃 기자 pgot@·김범근 기자 nova@

대학·기업 맞손... 첨단 인재양성한다

‘부트캠프’ 32개교 신규 선정

동국대·가천대·조선대 등 32개 대학이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기업들과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까지 분야를 넓히고, 지원 대학도 대폭 확대했다.

반도체 분야에는 △경기대(주요 참여 기업 원익QnC) △경남대(해성디에스) △경일대(텔레칩스) △구미대(썬씨엠티엑스) △대구대(썬네패스) △대림대(와이에스테크) △동국대(와이씨) △동의대(썬제닉) △선문대(필옵틱스) △우송대(썬광전자) △인하공업전문대(탑엔지니어링) △청주대(썬하이딥) △평택대(하나마이크론) △한경국립대

(케이시텍) △한국외대(가온칩스) △한양대(뉴파워프라즈마) △한양대에리카(DB하이텍) △홍익대(LX세미콘) 등 18개교가 선정됐다.

이차전지 분야에는 △국립군산대(대주전자재료) △동국대(포스코홀딩스) △동서대(금양) △충북보건대(LG에너지솔루션)가, 바이오 분야에는 △가천대(썬바이넥스) △영남대(썬유포) △충남대(썬카보엑스퍼트) △한남대(에스바이오메딕스)가 뽑혔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에는 △성균관대(코닝정밀소재) △순천향대(썬메가센) △한양대에리카(이엘피) 등 3개교가, 항공우주 분야에는 △조선대(에어빌리티) △청주대(RHFfocus) △한국항공대(대한항공) 등 3개교가 선정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의 기술발전이 따라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도 급변하고 있다”라며 “대학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기업 등 대학 밖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청년학생 일터서 서빙하는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경계선 지능 청년 상생 일터인 서울 종로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을 찾아 경계선 지능 청년과 보호자들을 격려한 후 식사 서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곳곳 ‘북한이탈주민의 날’ 문화 행사 봇물

14일 첫 기념일 앞두고 개최

이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이들과 동행하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7일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8~14일 한 주간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북한인권 포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 포럼’이 개최된다. 특히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가 참석한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는 8~13일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북한인권 사진·영

상전시회가 열린다.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콘서트’도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13일에는 북한과는 다른 교육체계와 교육환경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토크캠프’를 개최한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 대표 교육플랫폼인 ‘서울런’ 가입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남북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동행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냉철한 법복 속 묻어난 온정... 살아갈 힘 얻는 사람들

서초동 MSG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긴장될 때가 있다. 법무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법조인도 재판에 가면 떨린다고 한다. 법원이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은 더 어려움을 느낄 듯하다. 판사의 법대는 유독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거리감을 좁히는 사례도 많다.

어느 작은 지방법원의 이혼 사건. 얼마 아빠의 이혼 재판정에 함께 따라온 어린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젊은 판사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만지고, 판사를 토크 건드렸다. 판사는 나무라기는커녕 아이를 안아서 달래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아이를 맡기지 못한 채 재판에 올 수밖에 없던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잊지 못할 장면은 또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젊은 피고인이 무고를 당해 재판까지 갔다가, 결국 혐의에서 벗

어났다. 아버지뻘 되는 재판장은 선고 직후 “(술) 한잔하고 싶으니 꼭 연락하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언제든 연락하라는 위로에 피고인은 힘든 시간을 보상받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몇 년 전 전살 방조 미수사건의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호)이 화제가 된 적 있었다. 당시 재판부(재판장 박주영)는 피고인에게 처벌을 떠나

근엄한 이미지 탓에 거리감 있지만 재판정서 건넨 위로에 피고인 감동 안타까운 사연엔 차비 챙겨주기도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짚어줬다. 30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는 자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판결문 마지막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끝맺음한다. 삶과 희망의 의지를 다지도

록 격려한 셈이다. 판결문 낭독 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을 찾아갈 차비를 하라며 20만 원을 건넸다. 그리고는 “밥 든든하게 먹고, 어린 조카 선물도 사라”고 위로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법관 평가에서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어느 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XX들 하야튼...’, ‘딱 봐도 짜고 치는 거 아녜요?’ 등 부적절한 언행도 지적된 바 있다.

우수법관으로는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사건 지연을 방지하고, 사건 당사자 등에게 친절히 절차를 전달하는 판사들이 선정된다. 단순히 선처하거나 내 편 들어준다고 좋은 판사는 아닌 것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사람의 인생도,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며 “존중과 이해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판사의 마음에 누군가가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spes@

평범한 날도 더 행복하도록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더 많아야 합니다.
멀리 여행가지 않아도 즐거움을 누리고,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신 가까이에서 더 많은 행복을 만듭니다.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품 팔아 찾은 ‘노브랜드’ 가성비, 해외서도 통했죠”

노병간 이마트 노브랜드 PL 상무

‘적정 품질·낮은 가격’ 두 토끼 상품기획 위해 치열한 시장조사 9년 동안 3000여종 상품 출시 필리핀·몽골·베트남서도 호평

이마트를 대표하는 자체 브랜드(PB ; Private Brand) ‘노브랜드(No brand)’가 내년이면 출범 10년을 맞는다. 2015년 이마트에서 첫선을 보인 이듬해 경기 용인에서 단독매장을 열었던 노브랜드는 최근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24에 입점해 또 한번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어 ‘한국 대표 PB’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4년부터 노브랜드 상품기획을 맡아온 노병간(사진) 이마트 노브랜드 PL (Private Label) 담당 상무는 7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애초 취지는 저렴한 가격이라도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노브랜드 탄생 배경을 전했다. 그는 “이런 PB 탄생은 이마트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했는데, 적정 품질과 낮은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장조사를 치열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노브랜드가 그동안 출시한 상품 수는 무려 3000여 종에 이른다. 고객 반응에 따라 일부 제품은 단종하면서, 현재는 절반가량인 1500여 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노브랜드가 국내 대표 ‘가성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마트 내에 노브랜드를 넣는 숍인숍(Shop-in-shop) 전략과 전문점(단독 매장)으로 출점하는 ‘투 트랙’ 체제가 본격화됐다. 특히 노브랜드 전문점은 이마트로서도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였다. 노 상무는 “오픈 전엔 사람들이 노브랜드 상품만을 사러 과연 매장을 찾을지, 넓은 매장을 노브랜드로 채우는 게 가능할지 걱정이었다”며 “정작 오픈해보니 가성비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고, 현재는 전국 250개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브랜드는 해외시장까지 세력을 확장



하고 있다. 현재 수출 중인 노브랜드 상품은 800여 종이다. 가장 먼저 출점한 곳은 필리핀이다. 2019년 11월 필리핀에 첫 전문점을 열었고,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고품질 한국상품’ 인식 덕에 현지인들이 몰렸다. 현재 필리핀에 총 19개 노브랜드 전문점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필리핀 노브랜드의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35% 수준이다. 몽골과 베트남에서도 노브랜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53%, 59%의 매출 증가율을 낼 정도로 노브랜드 인기가 뜨겁다. 연내 라오스에서도 이마트 내 점포 1곳과 노브랜드 전문점 2곳이 오픈 예정이다. 노브랜드가 정식 출점하지 않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노 상무는 “현지 국가 수입상이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뒤 재판매(리셀)하고 있다”며 “그만큼 노브랜드 상품력이 인정받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

노 상무는 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계속 노브랜드 성장에 힘쓰겠다는 포부다. 최근에는 ‘이마트24 전용상품’을 출시해 수익성 확대와 계열사 지원 등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는 “과거엔 매장 규모에 힘을 실었다면 최근엔 질적 성장과 수익에 집중하고 있다”며 “발품 팔아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박리다매 전략으로 고객 유입을 끌어내는 한편 킬러 아이템(우선 순위가 높고 핵심적인 상품) 개발도 노브랜드의 지속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배미 기자 athena3507@

롯데홈쇼핑 ‘작은도서관’ 90호점 충선 폐현수막 3톤 사용 리모델링



왼쪽부터 이주철 한국구세군 남서울지방장관,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부장, 이은형 고강동지역아동센터장, 차성수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친환경 학습공간인 작은도서관 90호점을 개관했다.

롯데홈쇼핑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지역아동센터에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작은도서관’ 90호점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5일 열린 개관식에는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부장, 이주철 한국구세군 남서울지방장관, 차성수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은형 고강동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작은도서관 90호점은 전남 신안(89호점)에 이어 롯데홈쇼핑이 구축 희망 지역을 공개 모집해 개관한 두 번째 사례다. 4·10 총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3톤(t)을 업사이클링해 제작한 섬유패널로 기존 사무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또 친환경 가구와 노트북을 제공하고 에어컨 등 노후화된 설비도 교체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한국적 美’ 담아... 현대차,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 새 단장

한국전 참전...양국 우호관계 상징 정의선 회장이 지난해 방문때 제안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한국-튀르키예 양국 우호의 대표적 상징인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국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개월에 걸쳐 진행한 앙카라 한국공원 개선 프로젝트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공원 건립 취지인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잘 전달되고, 방문객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공원은 한국전쟁에서 목숨바쳐 평화를 지킨 튀르키예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튀르키예 건국 50주년인 1973년 조성됐다. 수도인 앙카라 도심에 위치해 많은 현지 시민들과 튀르키예를 방문한 한국인들이 찾는 곳이다.

1만여㎡(약 3100평) 규모의 공원에는 불국사 석가탑을 본떠 만든 9m 높이 한

국전쟁참전기념탑’이 서 있고, 탑을 떠받친 지대부 벽면에는 전사자 724명의 이름이 음각되어 있다.

공원 개선 프로젝트는 지난해 공원을 찾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개장 50년을 넘기며 공원 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한국공원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주 튀르키예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해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앙카라 문화재 보존위원회 등 현지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선 한국공원의 상징인 참전기념탑은 헤리티지 보존 차원에서 그대로 존치하되, 상단부 오염 및 변색 부위 세척, 하부 재도색 및 기반부 파손 부위에 대한 석재 교체 등을 진행했다.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 국기가 그려진 공원 담장과 벤치 및 캐노피 등 휴



‘6·25 전쟁 74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한 한-튀르키예 주요 인사들이 지난달 25일 한국공원 내 전통 한국식 정자인 ‘우정의 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게 시설도 깔끔하게 새로 단장했다.

새 단장을 마친 한국공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전쟁 74주년 추모행사’를 계기로 정연두 주 튀르키예 대한민국 대사, 베야

짓 유목 튀르키예 참전협회장, 아흐멧 쿠루마흐트 튀르키예 육군 4군단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개장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



재단법인 오뚜기함태호재단이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와 공동으로 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한 제29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에서 박기문(왼쪽) 재단 이사과 수상자인 김도만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 교수는 난수용성 소재의 배양체 제조와 천연가용화제 개발을 통한 수용화 소재 연구 등 다양한 기능성 식품소재 및 발효 분야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0만 원이 전달됐다. 김지영 기자 kjiy42@·사진제공 오뚜기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 美 샌프란시스코·베트남 하노이 간다

해외출국 경험 없는 취약층 지원 귀국 후 희망분야 진출 취업상담

해외 경험이 없었던 청년들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가 첫 출정에 나선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다양한 기업을 탐방하며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는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로 선발된 서울 청년 30명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약 4주간 미국·베트남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는 청년들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동시 탐방하며 해외 취·창업 등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



5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서울 청년 해외원정대’ 발대식. 사진제공 서울시

음 시작한 사업이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해외 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해외 출국 경험이 없는 취약 청년(26명)과 시정기자(4명)를 공개 선발했다.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한 원정대는 8박 11일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선진 산업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

해 LAM 리서치, 플러그앤플레이, K-이노베이션센터 등 주요 글로벌 기업·기관을 방문하고,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 사례 학습을 위해 UC버클리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도 방문한다. 25일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 원정대원들은 다음달 5일까지 신흥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을 탐방하며 성장하는 산업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원정대원들은 출국 전까지 영어와 베트남어 교육,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등 사전 교육을 받으며 해외연수를 준비한다. 귀국 후에는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상담, 이력서 컨설팅, 직무 특강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채비 기자 chaebi@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 ◇과장급 전보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이경제 △서울서부지청장 조선열 △서울북부지청장 왕중운 △서울관악지청장 김영심 △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 △의정부지청장 이종구 △여수지청장 이경근 △충주지청장 최경호 △보령지청장 이점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해근 ◇과장급 파견 △KOTRA 김진숙

부음

▲김정자 씨 별세, 박종만(한국산업은행 본부장) 씨 모친상 = 7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51-893-4444

▲전영숙 씨 별세, 이명희·창미 씨 모친상, 이수일(케이제이나노테크 대표이사) 씨 장모상, 이수현(머니투데이방송 기자)·이성원(법무법인 세종변호사)·김태훈·김상훈 씨 외조모상, 김민지(아시아나항공 근무) 씨 시조모상 = 6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02-3010-2000

▲석희세 씨 별세, 이종승(전 한국일보 사장·현 뉴스웍스 회장)·종관(쓰리엘파트너스 사장)·종우(링크제니시스 기획 마케팅 본부장) 씨 모친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3410-3151

▲김예심 씨 별세, 이귀남(전 법무부장관)·귀덕·귀숙·기현(양우건설 이사)·민정(한화생명보험 팀장)·기훈(안양자동차 운전전문학원장) 씨 모친상, 장승호(전 장흥읍장)·김현명(전 제일전자대표이사) 씨 장모상, 서향화·조미경·곽덕주 씨 시모상 = 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마감 후

부동산 시장에 '영끌족'이 돌아올 조짐이다. 집을 사려고 낸 빚은 가파른 증가세고 첫 집 마련에 뛰어드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잔액은 708조5723억 원으로 한달 새 5조3415억 원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이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조8466억 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동향을 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보구
부동산부 차장

후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물량 축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집값 급등 우려는 어찌면 당연한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도 2020~2024년 누적 주택 공급 부족량이 86만 가구라고 분석하면서 내년이나 내후년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패닉 바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최근 연이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내년 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이달 3일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바로 다음 날인 4일에는 올해 하반기 중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 발굴,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비아

주택공급, 중요한 건 '신뢰'

상승 폭은 0.2%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 가장 컸다. 수도권도 오름폭을 확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4978건으로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거래 건수는 아직 신고 기한이 많이 남았지만 벌써 4500건이 넘었다.

특히 무주택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구매한 사람은 총 1만69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다. 이 중 30대가 7333명으로 70% 가량 늘었다.

젊은 층이 은행 빚을 내며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이 3만 7793가구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

파트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밀린 속제를 해지우듯 분주한 정부의 행보가 수요자들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두려움의 원인이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주택 수가 아닌 정책 실행에 대한 불신에 있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지연되더라도 공급된다는 확신이 있고 그 시기를 가능할 수 있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무리해서 집을 살 까닭이 없다.

다음에 나올 정부 발표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다짐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기존 정책을 실행할 명확한 로드맵, 착공 지연 등의 원인인 공사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과 확실한 약속 같은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jbk@

도요타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야

논현로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세계 1위의 완성차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회장이 지난 1월 말에 이어 반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일이 생겼다. 품질인증과 관련한 대규모 부정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재계는 자동차 생태계는 물론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요타의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에는 상용차 자회사인 히노 자동차가 20년 동안 배기가스와 연비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엔 경차 전문 자회사 다이하스 공업에서, 올해 초엔 디젤엔진을 납품하는 도요타 자동차기에서 인증부정이 발각됐다. 특히 다이하스는 1989년부터 무려 34년간 174건의 부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도요타 일부 자회사의 일탈로 치부하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이번 발표로 도요타 본사를 비롯해 일본 자동차업계 전체에 부정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6월 3일 도요타를 비롯해 혼다, 마쓰다, 스즈키 등 5개 회사의 38개 차량 모델에서 성능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과거에 생산된 것과 지금 생산 중인 것을 합쳐 500만 대가 넘는다. 산업계에선 출고정지에 따른 도요타 등의 감산규모가 2개월간 2만~3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요타 계열 다이하스 공업의 인증부정에 따른 차량생산 중단은 1~3월 일본 국내 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자동차 생산은 전체 제조업의 20%를 차지한다. 주요 완성차 업체 8곳의 부품사는 5만 9193

개, 종사자는 550만 명이 넘기 때문이다. 생산 중단이 길어지면 회복세의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세계 자동차판매 1위로 복귀한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력 원천은 효율 우선의 기업문화였다. 가이젠(改善)으로 불리는 제조효율화, 여기에 재고 없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조달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만능의 기업문화에 가장 큰 피해

대규모 부정적발에 기업문화 추락
효율 우선주의가 품질소홀 초래해
반사의 기대 말고 소통점검 계기로

자는 품질이 됐다. 특히 지나치게 짧은 개발 일정과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문화가 결합하면서 성능 조사와 관련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데이터는 조작되는 부정행위가 반복됐다.

회사의 경영전략도 화를 키웠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경쟁업체들과는 달리 도요타는 '멀티 패스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모두 힘을 쏟는 전방위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차량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크게

증가한 인증항목은 현장에 큰 부담이 됐다. 그사이 현장제일주의라는 항목은 어느새 소홀해지고 지상명령이 된 경영전략이 기업문화의 주류를 차지해 버렸다.

반복되는 인증조사 사건으로 창업주 증손자인 도요다 회장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또 다른 의결권행사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도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도요다 회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한목소리로 도요다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6월 1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도요다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으나 최고경영자로서의 권위는 크게 손상됐다.

필자의 기억 속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최고의 이미지였다. 지금 회장의 아버지인 도요다 쇼이치로(豊田章一郎) 회장과는 게이단렌(經團連) 회장 재직 시 여러 번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필자의 저서 '사람이 기업을 만들고, 기업은 세계를 만든다'를 전달하자 도요타 자동차 부분을 찾아 무엇이 쓰여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도 했다.

한·일 재계회의에 참석해서는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의 협력확대 제안에 항상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한·일 경제협력의 초석을 놓기도 했다. 세계 1위로서의 여유와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한국자동차업계는 도요타의 위기에 반사이익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기업문화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소통의 부족과 비전 공유의 실패는 기업문화의 추락으로 손쉽게 이어진다는 것을 도요타 자동차가 뼈저리게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엇박자정책에 요동치는 가계부채

노트북 너머

정상원

금융부 기자



정부가 7월부터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연기 이유로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들었다.

고금리 취약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인데, 시장에서 '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는'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으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소리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말부터 6월까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우선 도입한 바 있다. 7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포함해 적용비율을 50%로 확대하는 2단

한 은행권은 난감하기만 하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을 두고 은행만 탓할 순 없다. 지난해 정부가 금융권에 상생 금융을 강조하자 은행들은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등 당국의 기조에 맞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금융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댄 달하던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은행을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갈팡질팡하는 정부 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필요한 건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이다. 정책 일관성이 뒷받침돼야 은행의 대출 운용도 그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jsw@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앨런 휘트니 브라운 명언
"유머의 미덕은 바로 이것이다. 실패해도 누구도 당신을 비웃지 않는다는 것."

미국 작가이자 코미디언. 그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NBC 스케치 코미디 시리즈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의 작가이자 출연진으로 활동했다.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되어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텍사스 감옥에서 배운 저급링으로 거리의 선수로 경력을 시작해 코미디언이 되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52-

☆ 고사성어 / 추심치복(推心置腹)

'자기의 진심을 꺼내 상대의 뱃속에 넣는다'는 말. 남을 믿고 진심과 성의를 다해 상대방을 대한다는 뜻이다. 후한서(後漢書) 권1 제기편에 나온다. 왕망(王莽)이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新)나라를 세우자 유수(劉秀)가 반기를 든 농민들을 규합했다. 유수가 농민봉기를 격파하고 잔여병력을 흡수

해 재편성할 때 적수였던 장군들에게 원래의 관직을 돌려주었다.

유수에게 살해될까 두려움에 떨던 장군들은 그가 조금도 경계하지 않자 '성의껏 사람을 대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니[推赤心置人腹中] 어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충성을 맹세했다.

☆ 시사상식 / 타깃 데이트 펀드(TDF·Target Date Fund)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조정해 내놓은 금융상품이다. 생애 주기별로 맞춤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가입자가 젊은 연령대일 때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나이 들고 은퇴 연령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이례적이다.”, “안보 관점에서 산업 위상이 올라간 것이 아니겠나?”, “규제 개선 등 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난달 초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바이오 행사 ‘바이오USA’ 한국관을 방문한 것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국가안보실 3차장과 첨단바이오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국내 기업이 모인 한국관을 찾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의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연합’ 발족을 알렸다. 5개국이 모친 바이오제약연합의 핵심 의제는 ‘바이오제약 공급망 안정, 회복, 다변화, 장애해소’ 등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을 통해 모든 국가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각인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백신과 치료제, 해열제와 항생제 등의약품은 물론 진단 검사 키트와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으며 ‘제약바이오산업=안보’라는 인식이 강화됐다. 의약품과 의료가기 등

이 새로운 무기(武器)가 될 수 있어서다.

안보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술패권에 이어 세계 각국은 ‘바이오패권’ 전쟁에 팔을 걷었다. 미국은 2022년, 유럽은 올해 3월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도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국 바이오경제 발전과 자국 내 생산기반 강화를 선언했다. 중국도 2022년 ‘14차 5개년 바이오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원료의약품 개발·생산과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어 긍정적이다. 바이오USA 현장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바이오를 안보 개념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보건 안보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

데스크 서약

송병기

헬스케어부장



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22년 기준 1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정책이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지난달 27일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이 시행됐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의약품 공급망 위협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담았다. 보건안보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이오패권 전쟁 시대에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조단위 기술이전과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바이오

USA 한국관의 소재·부품·장비 전시관 방문객은 3000명에 달했다. 상담은 400여 건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제약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투자는 아쉬움이 크다. 우리나라 3개 관련 부처의 2024년 바이오R&D예산은 1조5910억원으로 전년(1조5085억원)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물론 정부도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가동 등 산업 육성에 힘을 내고 있다.

‘제약바이오=안보’라는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원하는 혁신신약 가치 인정, 산업계와의 다양한 소통, 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육성 방안이 나오도록 정책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길 기대한다.

songbk@

세계 각국 바이오패권 경쟁 치열

정부 R&D 투자정체... 아쉬움 커

소통 늘리고 다양한 육성책 찾길

바이오패권 전쟁 시대에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조단위 기술이전과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바이오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판날 것

가계대출이 또 급증세다. 아제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1835억 원 증가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7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던 6월 기록을 경신할 공산이 크다.

집값도, 전셋값도 거침없이 치솟는다. 가계대출과 무관치 않은 시장 동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0%로 커졌다. 아파트 거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935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다. 경기부동산포털 집계 결과 같은 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만18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최고다. 전일 문재인 정권 때 민생을 강타한 부동산 광풍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1%대의 초저금리의 정책금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제한 요건이 지난해 연간 7000만 원에서 올해 하반기 2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2억5000만 원으로 또 상승한다. 지난해에 이어 30대가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최대 뇌관인 부채 리스크를 등한시한 정책금융이 ‘영끌’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오락가락 행보의 허물도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17개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자제를 요구하며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책금융을 무분별하게 풀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마저 졸속으로 연기해 투기 본능을 일깨운 것은 금융 당국이다. 누가 누구를 압박하는 건가. 이런 엇박자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2일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를 탓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왜 4~5월 가계대출이 10조 원 풀리고 아파트값은 15주 연속, 전셋값은 59주 연속 치솟았는지에 대한 자성과 속고는 잘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시장이 괜히 탐욕을 부리겠나.

경제 회생과 민생 지원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 목표다. 하지만 구조조정 없이 거품을 키우는 접근법은 국가적 자충수가 되게 마련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왜 장기화했는지 반추할 일이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차입 투자 광풍이 다시 거세게 불면 민생도, 정권도 결판난다.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감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부문에서 리스크가 쌓여 있다”면서 ‘연착륙’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핵심을 짚었지만, 해결책을 찾으려면 갈 길이 멀다. 정교한 대처를 당부한다.

진퇴양난 빠진 일본의 엔 약세

시론

오건영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



최근 외환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례적인 엔 약세이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면서 지난 30여 년 새 가장 낮은 엔화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 원화 기준으로도 엔화 환율이 100엔당 850원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엔저 기조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엔화 약세는 일본의 수출에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과도한 엔 약세는 되레 부담을 줄 수 있다. 엔 약세는 수입 제품의 가격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키게 된다.

외환시장 개입·금리 인상 모두 신중론 커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일본 내에서 저금리예금을 해지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큰 상품으로 돈이 쏠리는 매점매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물가 상승세를 심화시켜 뒤늦게 이를 제어하기 위해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을 높게 된다. 이렇듯 과도한 엔화 약세에 실제 일본 당국과 중앙은행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엔 약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외환시장 개입이다. 엔 약세와 달러 강세를 기대하면서 엔화를 팔아달러를 사들이는 투기세력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당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달러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달러 공급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되는 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서반대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엔 약세를 일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환 시장에 대한 특정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되는 셈인데, 미국과 같은 주요국들은 이런 개입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두번째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다. 최근 엔화 약세는 지난 3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버린 미국 금리와 여전히 전 세계 최저 수준에 가까운 일본의 금리가 큰 차이를 보이는 데 기인한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해 일본은 자국의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서 미국과의 금리차를 좁힐 수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빠른 금리 인상 역시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국가 부채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일본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일본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바,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에 익숙한 일본 경제에 빠른 금리 인상이 가져다 줄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한다.

미국 금리인하는 일본의 통제 밖 변수

여기서 마지막 방법이 거론될 수 있는데, 바로 미국의 과감한 금리 인하가 그것이다. 일본이 부담스러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는 좁혀질 수 있고, 이는 엔화의 일방적인 약세를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일본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또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더라도 인하의 속도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느리다면 미국과 일본의 가시적인 금리 차이를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엔 약세의 빠른 개선을 어렵게 한다.

엔 약세를 제어하는 방법은 있지만, 모든 방법이 나름의 부담 요인을 갖고 있다. 이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기에 일본 정부 및 중앙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상담소

기억해야 하는 슬픔들

2024년 6월 16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19세 청년 노동자가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되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채용되어 근무 중이던 청년의 수첩에는 2024년 목표로 ‘남에 대한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않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등이 적혀 있었다.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었으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있었다.

2024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여 인도로 돌진,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은 승진 인사가 발표된 날 축하 회식을 하던 은행원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은 공무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

히 노력하던 청년의 죽음에 눈물뒀을 겨를도 없이, 배터리 공장의 갑작스런 화재로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다. 시신 확인과 원인 규명, 진상 조사가 시작되는 찰나, 어느 늦은 밤 도로에서의 역주행 참사로 다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모두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온 평범한 청년이자 근로자였으며 회사원들이었다.

계속되는 참사에 이전의 죽음들이 잊혀져 간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책임 소재는 흐릿해진다. 재발 대책은 유명무실해진다. 대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정치가 개입해 끝없는 정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해 본질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제는 세월호를 통해, 이태원과 채 상병의 아픔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를 겪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보고 싶다.

강원남 행복한국을 웰다잉연구소 소장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KB금융그룹, 밸류업 프로그램 1호 공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들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하는 일하기에

KB의 시작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내일이 새롭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함으로써, 활발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국내 자본 시장의 선순환과 해외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5월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하며, 대한민국 1호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이 되었습니다.

